

마땅하다.

요즘 대부분의 학교에서 다시 입기 시작하는 교복을 보자! 옷감이 많이 들어 교복을 입혀야 한다느니, 가난한 학생과 부자 학생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하니까 교복 자율화는 안된다느니 하는 얘기가 있지만 교복을 입혀야 한다는 주장에는 교복으로 아이들을 통제해야 한다는 의도가 강하게 깔려있다. 교복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복 자율화 이후 청소년 탈선이 많아졌다는 주장을 펴는 것을 보면 그 사실을 금방 알 수 있다. 교복을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는 엄격한 학창생활에 향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즉 귀밑 2센티 미터의 머리, 박박 깎은 머리, 목까지 바짝 올라오는 것, 풀 먹인 옷깃, 검정 교복에 그리움을 갖고 있다는 말이다.

통제와 획일화는 결국 자유로운 상상력과 행동을 제약하며, 스스로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일사불란한 질서라는 틀 속에 가두는 비인간적인 교육이다. 비인간적인 교육은 명령과 통제를 수반한다. 교장-교감-주임-교사-학생으로 이어지는 군대식 지시전달체계, 이것을 거부하면 체벌을 받기도 한다. 매를 지나치게 때리는 것 역시 군사문화의 모습일 것이다.

왜 이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을까? 교사들은 입시교육 위주의 교육이 판을 치다보니 자율이니 인간교육이니 하는 것이 숨쉴 틈이 없다고 말한다. 한 반에 너무 많은 학생들이 있어 그들을 가르치다 보니 한 개인 개인의 생각을 존중하기보다는 획일화시키게 된다는 말도 한다. 그 아이들을 다 생각하기엔 교사의 능력이 모자란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 이유는 해방 후에도 청산되지 못한 일제 식민지 문화의 망령이 우리 교육의 바탕에 깔려 있고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지 못한 가운데 우리 사회를 지배해 온 군사문화의 해악이 학교 곳곳에 널려 있다는 데 있다.

### 일제시대와 너무나 똑같은 학교생활

군사문화와 식민지문화는 결국 한 뿌리를 가진다. 제국주의 국

가가 식민지에서 취할 수 있는 교육은 철저한 식민지화 교육이다. 즉 식민지 민족을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는 철저한 통제가 요구되었다. 노예가 민족정신과 자유로운 사고력을 가져서는 물론 안되었기에 그들의 교육은 민족혼을 빼앗는 교육, 노예로 길들이는 비인간적 교육일 수밖에 없었다. 이는 철저한 통제와 권위를 뿌리로 하는 군사교육으로 가능했다.

결국 학교 현장에 남아있는 군사문화는 바로 식민지 교육의 잔재인 것이다.

일본 식민교육은 식민지를 정치, 경제적으로 이용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로 획일화 시키고 어느 정도 억눌러야 하고 똑똑하게 만들면 안되었던 것이다. 종교 교육이나 도덕 교육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았고 “조선놈은 할 수 없어”라는 의식을 불어 넣었다. 학교를 군사훈련장으로 만들어 각종 훈련을 시켰고 학교 교원까지도 칼을 차고 제복을 착용했다. 식민지교육의 잔재는 겉으로 보이는 이런 것에 그치지 않는다. 출세하여 이름을 드날린다는 일본의 학벌주의가 우리들에게 깊숙히 파고든 것도 바로 식민지 교육이 끼친 해악이다.

이미 고인이 된 성내운 선생의 글 한대목 “선생님, 10여년 전의 일입니다. 저는 일본 교육을 보고 오는 길에서 일제시대의 교육을 연구하고 있는 미국인을 만났습니다. 일제 교육에 관한 지난 날의 문헌은 일본 안에서 유감없이 모았는데 한국에 가야만 그 일제교육의 찌꺼기를 눈으로 볼 수가 있대서 서울행 비행기를 탔다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단 한 사람의 일본인 교사도, 단 한마디의 일본 말도 지금의 한국 학교에 남아있지 않음을 자랑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걸 알고도 오기로 했다는 데는 어이가 없더군요.”

이 외국인의 말이 과장된 것은 아니다. 겉으로 보면 일제의 자취는 아무 것도 없는 것 같다. 그러나 학교 행사 곳곳에 우리 의식 곳곳에 파고들어 있는 일제의 잔재는 끄적할 정도이다.

실제 우리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사를 보면 지금과 일제 식민지 때와 달라진 것은 약간의 틀일 뿐 속 내용은 그대로이다.

학교 행사만이 아니다. 가끔 선생님도 그렇고 학생도 그런 말을

한다.

“매를 맞아야 말을 들어.”

“선생님, 좀 무섭게 대해주세요. 선생님이 그렇게 순하시니까 우리반 아이들이 문제가 많은 거예요.”

“한국인들은 어쩔 수 없어. 꼭 조여야 제대로 일한다니까.”

우리 의식 속에 자리잡은 식민지 문화의 단면을 보여주는 말들이다. 더우기 어른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까지 이런 생각이 파고 들었다는 건 큰 문제이다. 어느 고등학교에서의 일이다. 간선계 학생회 간부들이 이런 주장을 했다. 교련조회를 해야겠다고. 책임을 맡아야 하는 교련교사도 힘겨운 일이어서 탐탁치 않게 여겼고, 대다수 학생들과 교사들이 반대했다. 그러나 학생회의 교련조회 요구는 강렬했다고 한다. 완장을 두르고, 검을 차고, 군화를 신고 철격거리며 깃발과 함께 당당히 행진하는 조회가 그들에겐 질서와 권위의 상징처럼 보였던 것이다. 어른들의 잘못, 특히 교사들의 잘못이 크다는 뼈저린 반성을 하게 된다.

### 교과서는 민족정기를 가르치고 있는가

일제시대에는 총독부가 독점하여 만들었다는 교과서. 지금은 교육부가 관장한다. 출판사에서 만들어 교육부의 검정을 받는 것이 많지만 국어나 국사 같은 과목은 교육부만이 만들 권리가 있다. 교육 내용의 핵심이 되고 있는 교과서는 민족정기를 가르치고 민주적인 사회를 가르치고, 인간답게 사는 길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든다.

국어 교과서를 보자. 물론 직접적으로 친일을 한 사람을 미화시키거나 친일 작품을 실지는 않았다. 역사 교과서 역시 일제를 옹호하거나 군사쿠데타를 미화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학교 곳곳에, 우리 사회 곳곳에 살아 숨쉬는 일제 잔재를 파헤친 글은 없다. 우리 사회의 비민주적인 요소를 말한 글도 없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배우지 못하고 있다. 텔레비전에서도 방영되는 정신대 문제를 학교에서는 배우지 않는다. 가까이서 80년 광주항쟁도 뒀지

모른다. 4.19라는 역사적 사건도 스쳐 지나간다. 참된 자유와 민주주의를 배우는 대신 지나친 자유는 사회에 무질서와 혼란을 가져온다는 논리를 배운다. 학교가 참된 삶을 배우는 곳이라면 더불어 사는 삶을 가르치고 우리 사회의 밝고 어두움을 가르치고 우리 역사를 제대로 가르쳐 줘야 하지 않겠는가!

한 학생은 이런 말을 한다.

“물론 교과서는 재미가 없어요. 우리는 그저 시험에 나올 것이 뭔가 줄을 치고 외느라 교과서를 보는 거지요. 교과서가 진실한 삶을 가르쳐주지는 않아요. 우린 다른 걸 통해서 삶을 깨달아 가지요. 선생님들도 어쩔 수 없나봐요. 교과서를 앵무새처럼 말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예요. 좀더 깊고 진지한 얘기를 해주시는 분도 있지만 학생들 모두에게 환영받는 건 아니예요. 학생들도 이 경쟁에서 이겨야 하니까요.”

### 우리를 지배해 온 의제

학교에 이런 행사가 있고 이런 이런 행동은 군사문화고 이런 이런 일들이 식민지 사고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여기에서 멈춰서는 안된다. 왜 그같은 일제 찌꺼기가 계속 남아 있고 왜 학교가 통제와 획일화 속에 있어야 하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왜 그런 것들이 점차 사라지지 않고 더욱 다른 방향으로 확대되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일본의 저질 문화가 우리 청소년에게 다시 파고드는 현상을 보자. 학생들은 잘 알지도 못하는 글자 투성이의 일본잡지 「논노」같은 걸 뒤적이고 일본 가요를 듣는다. 그 잡지에 나오는 삶들과 비슷한 머리 모양에 옷차림을 하면서 민족정신은 희미해져 간다. 일본 가수에게 열광하는 경우도 있다. 일본은 싫다고 하면서도 각종 일제 상품에 정신이 팔리기도 한다.

일본과 함께 미국이 점차 우리에게 파고드는 현실도 지나칠 수 없다. 제도면에서도 그렇고 사고방식에서도 그렇다.

“한 마디로 우리 나라는 해방된 뒤에 자주적인 민족국가로 서지

못했습니다. 외세의 힘에 눌려 나라는 반동강이 났고 정치하는 사람도 민족정기를 실현시키지 못했어요.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물러났지만 그 일본에 협력하던 사람들이 그대로 높은 자리를 차지했지요.”

“해방 후 우리는 다시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에 편입되었습니다.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자연히 교육제도도 그렇게 됐지요. 교육학을 공부하시는 사람들은 주로 미국에서 공부했습니다.”

“학교 사회도 결국은 우리 사회 전체를 반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회를 지금까지 지배해 온 사고방식이 군대식 사고방식이지요. 학교 역시 이런데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여러 선생님들이 한마디씩 던지는 말 속에 우리들이 생각해야 할 문제가 있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 좀더 생각해야 할 일들

이처럼 식민문화와 군사문화가 판치는 학교와 교육현실 속에서 이런 문제를 포함한 교육의 모순을 극복해 보고자 일어선 사람들이 있다. 이 극복의 움직임은 학생, 교사, 학부모, 교육의 세 주체 모두에게서 일어났다. 아이들을 살리는 참교육을 염원하며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의 깃발을 든 교사들은 전교조를 결성했고, 더 이상 방관자가 될 수 없다며 학부모들도 단체를 만들어 힘을 모아가고 있다. 잘못된 교육의 가장 큰 피해자인 학생들도 교육의 주체로서 깃발한 학생 권리의 실상에 눈떠 가고 있다. 물론 학생운동의 역사는 일제시대 3.1운동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일제시대, 해방공간, 4.19 아래서 입시, 경쟁교육에 짓눌리며 일시적이거나 후퇴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87년 이후 고등학생운동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이다.

지금에 이르기까지 비인간적인 학교 생활을 하며 얼마나 많은 우리 학생들이 눈물을 흘리고 분해했는가!

자주적인 학생회를 구성하려다가 온갖 모욕과 욕설, 시달림을 당하는 학생들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다. 학생

활동을 위해 유인물 한장 만들어 뿌렸다고 정학 당하고, 남들이 잘 안 읽는 책을 읽고 있다고 불려다니고, 불법 찬조금 문제로 시위를 했다고 학생들이 무더기 퇴학을 당한 곳도 있다.

자율과 자주성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다. 3년 전 89년 5월을 전후해서는 전국 곳곳에서 전교조 가입 선생님들을 지키겠다고 학생들이 일어섰다. 순수한 의지와 양심, 참교육의 열망으로 일어났던 그들이 겪었던 시련, 또한 말할 수가 없다. 학생부실에 갇혀서 기절할 정도로 맞은 학생이 있거나, 그 학교 교장이 경찰에 고발하여 감옥에 갇힌 학생도 있다. 크고 작은 폭력 사건은 말할 것도 없다. 어른들은 부끄럽게도 그들을 불온시하고 억눌렀다.

그리고 지난 91년 5월 18일 김철수 군은 '노태우 정권 퇴진과 인간교육의 실현'을 외치며 불꽃으로 사라져 갔다. 그는 학생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교육의 폭력을 뼈저리게 느꼈고, 교육을 그렇게 만드는 정권의 부도덕함을 깨달았기에 '정권퇴진과 인간교육 실현'을 외쳤던 것이다. 철수의 죽음은 황폐화된 우리 교육 현실과 그런 현실을 조장하는 정치권력에 대한 교고생의 '죽음의 저항'이었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에게 크나큰 충격을 주었다.

그 죽음을 딛고 사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아직도 학교는 인간교육의 장이 되기엔 멀기만 하다. 작은 힘들이 모이고 모여 하나의 흐름을 이룰 때 학교와 교육은 변할 것이며, 우리의 살갍에 달라 붙어 있는 식민문화와 군사문화의 잔재도 사라질 것이다.

## 청소년 학생의 현실과 교사의 학생생활지도에서의 유의점

김 남 선(참교육상담소 소장)

### 새로운 삶을 위한 재편기, 청소년기

중고등학교 청소년 시절은 인생에 있어서 태내기 이후로 몸과 마음이 급성장하는 시기요, 성인을 향한 준비기다.

창의력과 사고력 판단력도 성인 못지 않게 발달한다. 어른들의 행동에 대해서도 잘잘못을 판단하고 나름대로의 가치기준을 세워 가는 때다.

맹목적인 권위에 쉽게 복종하지 않으며 자신을 향해 내리누르는 힘에 반발한다. 자의식이 발달하여 이제 부모나 어른들의 감시,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나름대로의 세계를 꿈꾸며 자신의 현재와 미래에 대하여 고민도 한다. 무엇보다도 자유와 자율을 갈구하는 때다. 나름대로의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사회와 정치와 종교, 문학 등에 관심을 가지며 인간관계도 새롭게 형성해 간다. 그래서 친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성친구를 찾는다. 성인으로서 자립하기 위해 홀로서기 하는 과정에서 느껴지는 고독과 불안을 극복하기 위하여 소속한 단위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때로는 과장된 행위로서 자기의 존재를 알리고도 싶어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기도 한다.

아이이면서 어른이고자 하는 새로운 삶의 재편과정에서 느껴가는 여러 정서상태는 불안하다. 갑자기 웃다가는 슬퍼지기도 하고

우울과 고독감에 젖어 있다가는 활짝 밝은 모습을 띄기도 한다. 밤하늘의 별을 보고 감동하기도 하고 솔방울이 굴러가는 모습을 보고 까르르 웃기도 한다. 작은 말 한마디에 큰 상처를 받기도 한다. 따뜻한 인정어린 말 한마디에 감격할 줄 아는 감수성이 풍부할 때다.

모든 가능성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발을 기다리는 시기다.

가능성을 향한 도약의 나래짓에 가슴이 설레이는 이 시절에 철수는 고통에 견디다 못해 자신의 몸에 불을 그어 산화해 갔다. 그런데 “우리도 인간이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로버트가 아니다. 참교육이 살아 숨쉬는 운동장에서 실컷 공이나 차보고 싶다”는 철수의 절규는 오늘도 참교육 상담소 따르릉 선생님의 전화통에 애타게 울리고 있다.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어야 하는 학교가 수용소 같다고 하고 입시 전쟁터 같다고 호소한다. 그리고 “선생님 우리는 왜 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는 공부에 치여 저의 이상도 미래도 저당담혀야 합니까? 저희들은 시험이라는 채찍에 쫓겨 이제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느낌입니다. 아이들은 시험이 우리들에게 무기정역을 선고하였다 고까지 해요. 성적 경쟁은 친구와의 우정마저도 앗아가요. 외로워요. 외롭고 답답해서 술도 먹고 담배도 피워요. 우리들은 갈 곳이 없어요. 자유롭게 기를 펴고 활동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학교자치 활동등 무엇인가 자율적으로 활동 하고자 하면 교칙에 의하여 우리의 행동이 부당하게 규제당하고 처벌 당하지요……”

이렇게 철수의 고통이 여전히 들리고 있는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은 학생들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였는가 반문을 해보면서 다시금 학생들의 현실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학교현장의 지금 이 자리에서 고통하고 있는 학생들의 정서를 어떻게 끌어안고 생활지도를 해나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 여러가지 통계를 통해 본 청소년들의 현실

서울 Y M C A 청소년 연구 보고서에 의한 통계이다.

91년 11월에 부산 등 7개 도시에서 5232명의 남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

#### 청소년 학생 가출충동!-74%

청소년 학생들이 가출충동을 느끼는 것이 전체의 74.1%가 되는 데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서 가출충동을 느끼게 되는 때는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을 때 (21.4%) 시험성적 결과가 나올 때(20.3%)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중에(12.0%)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을때(11.9%) 중간고사나 학기말 시험 등을 앞두고 있을때(10.5%) 성적이 나빠 선생님으로부터 야단을 맞을 때(4.8%) 등의 순이다.

#### 56.7% 이상의 학생들 시험성적 문제로 가출 충동!

이 통계에 의하면 시험성적으로 인하여 조사학생의 56.7%이상의 학생들이 가출충동을 느끼고 있다. 시험의 압박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심정이 가출충동으로 나타난 것이다. 고민거리나 걱정거리를 묻는 문항을 보면 학생들이 얼마나 입시위주의 시험으로 고민하고 있는가를 잘 알 수 있다.

진로, 진학문제 (35.9%)

성적, 학업문제 (35.2%) 로 나타났다.

#### 학교생활에 56.2% 불만!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불만족이 56.2%를 점하고 있다. 청소년 학생들의 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학교생활이 이렇게 피로움의 그늘로 덮혀 있다.

가출도 못하는 학생들의 경우는 견디다 못해 죽음으로 답답한 상황을 돌파하고자 해서 1년에 100여명의 학생이 성적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현실이다.

그리고 90년 11월 서울 YMCA가 서울지역 학교 청소년

166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에서도 청소년의 죽을 것만 같은 심정이 잘 나타나 있다.

#### 자살 충동 73.1%

조사에 따르면 자살충동을 느낀 청소년은 전체의 73.1%이고 자살기도나 자해행위 경험이 있는 학생은 11.0%나 된다는 것이다. 또 일반적인 자살행위에 대한 태도는 그럴수도 있다는 응답이 52.9%이고 성적비판 자살행위에 대한 태도는 그럴수도 있는 일이라는 응답이 63.9%다. 입시위주의 교육과 통제위주의 청소년 환경은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91년 YMCA 설문조사에 의하면 청소년들이 가정생활에서 가출충동을 느끼게 되는 때는 이유도 듣지도 않고 무작정 야단칠 때 (30.5%) 집에서 나의 존재를 알아주지 않을때(17.2%) 예기치 않게 시험점수가 나쁘게 나왔을 때(15.5%)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될때 (14.0%) 지나치게 과잉보호와 간섭을 할 때 (7.2%)등으로 나타나 있다.

대부분 야단치고 집에서 알아주지 않는 것도 학교에서의 성적이 좋지 않을 경우가 많다. 많은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이 속박감을 느끼고 살고 있고 정서상태가 우울한 상태다. 다음 설문결과를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자신의 목표와 가장 가까운 것으로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는것(35.6%)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는 것(14.0%)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차지하는 것 (8.3%)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7.7%)... 기타 순으로 나타나 있다.

요즘 인생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분으로는? 하고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즐겁고 희망적이기 보다는 슬픔이나 고민이 더 많다. (46.0%) 절망을 느끼며 자살, 가출까지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9.8%), 슬픔이나 걱정 어느것도 느끼지 않는다(9.8%), 매우 즐겁고 희망에 차 있다(4.6%).

1991년 2월에서 6월 사이에 학생 탄압관련 통계는 학생들의 자율적인 활동이 얼마나 통제되고 있는 가를 잘 반영해 주고 있다.

퇴학 2명, 강제자퇴 2명, 무기정학 43명, 유기정학 11명, 근신 26명, 진술서 작성 강요 25명, 감금 구타 폭행 26명, 자퇴 및 전학 강요 1명, 체벌사망 1명……… 합계 자살학생 제외하고 138명이다.

이들 학생의 경우 대부분은 참교육 요구, 학생의 권리주장, 동아리 활동, 학생행사와 집회 참석 등으로 관련되어 탄압받은 것이다.

### 학생들의 글을 통한 청소년들의 현실 ('갈 곳 없는 우리들'에서)

여기 나온 글들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그들의 심정을 적으라는 것에 대해 답한 것들로, 아파하는 심정들을 기록해 놓은 것들이다.

너무나 아픔이 질절하여 이것을 사회에 고발하고자 필자가 책으로 엮었는데 그 책, '갈 곳 없는 우리들'에서 발췌한 내용들이다. 청소년들의 현실을 잘 말해주는 것 같아 인용한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실을 배우고 싶다.

…우리 학생들은 물론 진실되고 참된 학문을 배우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참된 학문을 배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교과서의 내용을 무조건 외우는 것이 진실된 학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교사들의 올바른 말 한마디에도 제약을 가하고 있어 선생님들은 진실된 말 한마디를 하는 것도 눈치를 봐야한다고…….

우리에게도 알 권리가 있다. 왜 우리에게 좀 더 많은 내용을 가르쳐 주지 않는지 모르겠다. 지금은 민주주의 시대다. 우리가 동록금 내고 다니는 이상 우리에게도 알 권리가 있다. 왜 5.16이러든지 광주사태에 대해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는지 모르겠다.

선생님께서 말씀 못하실 것도 있으시겠지요. 하지만 선생님이 아니시면 저희는 국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게 됩니다. 부모님께

서도 말씀해 주시지도 않을 것 같고 선생님께 여쭙볼 용기도 없고 잘 가르쳐 주시지도 못할 것 같아 선생님께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짧은 생각일지 몰라도 역사가 중요하다면 지금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하지만 역사라는 과목을 배우듯 사회의 현실에 대하여 생각하고 배우는 시간은 없다. 좀 더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과 또 이 사회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16세, 내 나이면 자유로운 생각을 할 수 있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오늘날은 나이를 먹으면서 점차 판단력을 잃어가고 사고력이 퇴보되는 듯하다.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사회의 부정을 알만한 나이인데, 왜 우리는 이런 것과 등을 지고 네 알 바가 아니라며 코웃음만 치며 살아야 하는 것일까….

교사는 학생들에게 사실을 전달해야 한다. 교사들은 무엇인가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듯 싶다. 교육은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가르치고 배울 때만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좋은 일은 알리고 나쁜일은 모두 꼭꼭 싸매어 그들 머리 속에 두려한다. 우리가 단것만을 먹는다면 우리는 쓴맛을 모르게 된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사회의 좋은 점만을 본다면 모든 부분을 볼 수 있어야 할 지금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우리가 사회에 나갔을 때 우리는 모르는 다른 세계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들 것이다. 그리하여 당황하고 어찌 대처해야 될 줄을 몰라 우리가 원치 않는 길로 빠져들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12년간 배운 모든 것이 헛것이 되고 만다.

학생들은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갈망한다.

우리 학생에게는 자신들의 생각을 쏟아부을 공간이 필요하다.

학생시절은 많은 생각을 하며 성장해야 할 시기이다. 우리는 태

어나면서부터 눈뜬 장님으로 자라나고 있다.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스스로 판단하는 일없이 살아서 알아야 할 것은 알지 못한채 누군가에 의해 주입된 지식만으로 학생 시절을 마치고 사회로 나갔을 때, 우리의 정신세계는 파괴되고 그저 생활하는 능력 이상의 능력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

### 갈곳 없는 우리들

시험도 끝나고 우리들은 날아갈 것만 같았다. 우리는 일요일날 약속 장소에 모두 모였다. 그 동안에 시험 때문에 쌓인 스트레스를 한껏 해소시켜 보자는 것이었다. 우리는 출발하고 외쳤으나 아무도 그 자리에서 발을 떼지 못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될 지를 몰랐기 때문이다. 아니 갈 줄을 모르는 게 아니라 갈 곳이 없는 것이다. 영화를 보려고 해도 모두 미성년자 출입금지. 고등학생 이하 관람불가라고 써어져 있고 로울러 스케이팅장 같은 곳도 교외지도반 선생님께 걸리게 되어있다.

우리는 갈 곳이 없다…… 우린 놀고 싶습니다. 하지만 놀 줄도 모릅니다. 선생님 놀아요 라는 그 한마디뿐. 또 실망하고 말없는 반항을 할 뿐입니다. 저희에게는 보충수업도 컴퓨터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친구와 이야기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그런 곳이 없습니다.

### 사춘기를 느낄 시간도 없다.

꿈많은 여고시절이라는 말이 있었다. 하지만 그것도 옛말. 요즘 고교 학생들은 입시지옥, 영수병, 4당5락 속에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현재 무엇을 생각하고 고민하는가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끊임없이 재촉과 성화만을 하시는 선생님과 부모님…… 우리에게 자유로이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을 주었음 한다…… 어느날 서점아저씨가 대뜸 나에게 학생은 자신이 사춘기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라고 물었다. 무의식중에 튀어나온 말이 “요즘 그런 것

생각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였다…….

### “시험이 고통스럽다.”

우리 언니는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다. 언니는 도시락 두개를 챙겨 들고 골목의 보안등을 등지고 학교로 간다. 그리고는 도서실에 들러 공부하고 새벽 1시쯤 게슴츠레한 눈을 뜨고 집에 들어온다. 언니는 요즘 잘 웃지도 말을 하지도 않는다. 유월의 따뜻한 날씨도 곧 다가올 주말도 언니는 기쁘지 않나보다. 나도 저렇게 될까. 나도 고등학교에 가고 대학교에 갈 차비를 하기위해 저렇게 되어야 할까 두렵다. 누가 우리 언니를 저렇게 찌들게 했는지…….

시험이 날 식물인간으로 만든다. 요즘 떨어져 가고 있는 제 성적에 대해 별로 걱정이 안된다. 될대로 되라는 식이다. 모든것이 귀찮고 따분할 따름이다. 수업시간에 선생들의 말씀은 날 더 식물인간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만 같다. 난 꼼짝하고 싶지 않다. 그냥 이대로 굳어 버리고 싶다……. 나는 시험의 시자도 듣고 싶지 않다. 시험때문에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웠던 적이 많다. 마음은 늘 초조하고 긴장되어있고 눈은 충혈되고 머리는 어지럽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몸으로 학교를 다닌다. 차라리 집에서 폭 쉬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도 해보았다…… 시험에 떨어지는 사람은 아예 사람 취급도 해주지 않는 세상이다. 시험에 떨어지면 꼭 이 세상에서 낙오자가 된듯이 사람들은 말을 한다.

입시경쟁은 우정도 신의도 저버리게 한다.

너무나 한심한 일이다. 내가 알고 있는 중요한 것을 남이 알까 두려워하고, 경쟁자가 나보다 한 개라도 더 맞으면 멀쩡한 배가 갑자기 아파오는 나! 자신이 무척이나 알밋고 처량해 보인다…….

2학년 때의 담임선생님의 말씀. 옆에 있는 짝도 자기 적이다.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을 꺾어야 해!

자기 고민을 터 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친구.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사랑하고픈, 진정한 친구를 원하는 우리에게 친한 친구 모두가 적이라니 그리고 그들을 눌러 이겨야 한다...

마치 전쟁을 하는 것 같다.....

...학교에 와 내가 못 푸는 문제를 다른 아이가 풀 땐 난 갑자기 정신이 흐려진다.

남에게 물어보기 싫지만 모르니까 물어 보면서도 마음 속으로는 제발 이 아이가 이 문제를 못 풀었으면 하는 심정이다. 이 얼마나 고약하고 못된 심보인가.....

...평소때와는 달리 시험 기간이 되면 경쟁이 더 치열해져 남보다 하나라도 더 맞으려고 괴로워한다. 그때의 모습은 친구가 아닌 복한 주민들같이 느껴진다.

...내가 버스를 타고 가며 우연히 들은 이야기.

"어제 하나가 또 죽었대. 입시 경쟁에서 또 한명이 탈락했어. 우리로선 좋지 뭐!"

입시경쟁은 부모자식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왜곡시킨다.

또 성적이 떨어져 비관하고 낙심하여 집에 들어가면 부모님으로부터 꾸중을 듣는다. 이는 사람과 비교해 가며 누구는 어떻게 잘 하는데 너는 왜 그러니 하시면서 야단을 치신다. 누구 하나 나의 마음을 이해해 주지 않고 나를 존중해 주지도 않는다.

심지어 동생들마저도 나를 업신여기는 것 같다. 그러면 내 마음은 더 열등감과 스트레스로 인하여 반항벽이 왜간다.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 죽음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다..... 나는 시험 성적 때문에 집에서 버림받은 느낌을 한 두 번 받은 것이 아니다. 나는 매일 마음 속으로 빈다. 다가오는 시험에서 동생보다 잘 보게 해 달라고. 그러면 가족 모두가 나를 알아 줄 것이고, 혼자 된 느낌을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부모님이 어렸을 때 이루지 못한 것을 자녀에게 하라고 하니 하기 싫은 자녀들은 죽을 각오까지 한 것이 아닌가 하고. 내가 아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해 주셨다. 어느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었는데 꿈을 이루지 못하자. 그 꿈을 자식을 통해 이루려고 자식에게 피아노를 가르쳤다. 하지만 그 자녀는 피아노 치기가 싫었다. 그러나 엄마가 하도 피아노 노래를 해 그 자녀가 마침내 피아노 공포증에 걸리고 말았다는 것이다. 그녀는 피아노만 보면 엄마의 회초리가 생각나 무서워 떨었다고 한다... 이런 교육으로 인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은 자기 자식을 죽이고 병들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고입 학력고사장에서 시험 볼때의 일이다. 내 뒤에 앉은 놈이 좀 컨닝을 하게 답안지를 옆으로 밀어놓으라고 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랬더니 쉬는 시간에 그놈 하는 말이 나 이번에 또 떨어지면 그 XX년에게 맞아 죽어 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그 XX년은 그 놈의 어머니였으리라 ...

... 엄마 아빠는 항상 우리를 우리에게 가두어 놓고는 공부라는 먹이만 주는 사육사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그 우리에서 벗어나 자신의 이상을 펼쳐보고 싶다.

## 교육방법 및 교육 내용에 관한 생각들

어른들은 교육이라는 도구를 이용하여 우리를 기계와 컴퓨터화하려 한다. 아무런 생각없는 기계,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을 만들려하는 어른, 위정자들.....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면에서는 눈부신 발전을 했다고 누구나 말한다. 하지만 몇십년이 지난 지금 교육제도와 학교가 변한 것이 있을까?

... 뭐든지 외우는 것 투성이다. 하다 못해 진짜 이해를 요하는 수학까지도 어려우면 한가지 문제의 식, 답까지도 외워야 한다 ...



... 많은 사람들이 지적해 왔고 수정을 요구해 왔지만 아직도 고쳐지지 않는 암기위주, 지식을 주사기로 주입하는 듯한 주입식 교육이다.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만 같은 교육이다.

... 대학을 못가면 먹고 살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도 아무도 필요없이 오직 공부만 해야 한다. 내 생각에 우리나라 교육은 완전히 잘못되어 있다.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도 마찬가지이다. 대학 나온 사람만 선호하는 사회가 바뀌기 전까지 교육도 잘되기는 영 틀렸다.

... 우리들은 대학을 가려고 공부를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공부를 한다. 조금만 틈만 있으면 영어단어 외우고, 수학공식 외우고, 또한 내신성적을 올리기 위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가 되면 밤새워 가며 공부를 한다.

... 어떤 아이는 교과서를 이야기의 흐름이나 내용은 잘 알지 못하면서 그냥 무조건 외운다. 그러면 시험은 잘 볼지 모르지만 자기가 무조건 외우기만 한 내용을 언제까지 기억을 할까.

아침 저녁으로 보충수업비 내라고 강요하고, 폭폭 짜는 여름에 가르치는 선생님도 좋고 배우는 학생도 좋고, 복도에는 노는 반 없나 감시하는 선생이 서성거리고, 기껏 단순한 지식을 전달해 주면서도 선생들은 마치 몇십년전 서당 선생처럼 굴려고.

앞에서 욕먹은 학생들은 선생 등 뒤에서 세배로 더 욕하고, 이 웃기는 청춘이 아깝고 답답해서 담배 피우면 엉덩이엔 언덕이 오르고.....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서 이곳, 저곳을 눈돌리지 못하게 철저한 공부벌레가 되도록 만드는 무기력한 교과서를 가지고 내가 얼마만큼이나 정열을 쏟아가며 공부를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든다.....

### 교사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하여

교육환경의 개선으로 학생들의 행복을 실현해야...

학교생활에서의 학생들의 행복실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마음껏 배우고 생활하기 좋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일에서 비롯될 것이다.

앞에서 통계상으로, 또 학생들의 생각을 직접 접하는 가운데 가장 학생들이 괴로워하는 문제가 입시위주의 경쟁교육임이 밝혀졌다. 정복하지 않으면 정복된다는 절박함 속에서 친구의 잘됨을 슬퍼하고 혹시 내 친구가 더 잘하지나 않나 하는 경쟁심 속에서 진정한 우정이나 사랑은 좀처럼 싹트기 힘들다는 것을 들었다. 이것은 학생사이 뿐만 아니라 학생과 부모와 교사사이에도 마찬가지이다. 자기 가문의 발전이나 출세의 도구로 자식의 성적 향상을 추구하는 부모로부터 진정한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 입시 위주의 교육풍조 속에서 풍성한 감성과 꿈과 수많은 가능성을 저당잡혀 있는 현실을 목도하였다.

학생들을 죽게까지 하는 입시위주의 교육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육체제의 개혁이 필요하다. 그래서 학생이 진리를 마음껏 배우고 인간의 전면적인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교육실천이 이루어질 때 학생들의 행복에 복무하는 일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이같은 교육환경은 더 이상 교육이 지배자들이 원하는 사상과 의식과 태도를 주입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화하지 않을 때 가능한 일이고 이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등이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것이 되었을 때 제대로 실현될 것이다.

이같은 환경조성은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일이 아닌 것이다. 중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오늘 해결해야 할 몫을 착실하게 일구어 나갈 때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고통하는 학생들의 현실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지금의 고통을 피해 극한 상황으로 치달리는 것을 멈추고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수용하여 해결과 발전을 향한 건강한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어야 한다. 이 건강한 발걸음에 작은 한 방편으로 설정한 것이 정이 넘치는 인간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것 또한 학교생활에서 학생들의 행복 실현을 위해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

### 정겨운 관계를 위하여

입시위주의 구조가 계속되는 한 한계가 있는 일이지만 학교생활에서의 애정과 소속감, 화합을 위한 생활지도를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우선 학생들과의 관계에서 또 교사와 학생 사이에서의 정겨운 관계형성을 위한 생활지도를 생각해 본다.

학생들과의 화합을 위해서는 서로가 베푸는 활동이 필요하다. 학생들이 물질적으로 주고 받는 일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마음이라도 주고 받는 상황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힘으로 겨루는 대신에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며 각자의 독특함이 상대방 안에 존재하도록 서로를 인정해 주고 신뢰하고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여 주는 것이다.

우선 교사는 학생들의 현재의 정서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또 학생들로 하여금 마음 속에 있는 바를 솔직하게 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분위기를 형성하여 주는 것이다.

가능하면 집단 상담활동 등을 통하여 집단적으로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풀어놓게 하는 것을 제도화 하는 것도 그 한 방법일 것이다. 교사와 학생 모두가 사소한 정서의 변화라도 받아주고 반응해 주고 그리고 수용해 줄 때 아이들이 시험에 지들린 정서들이 조금은 밝아지리라고 본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마음 상태를 읽고 또 서로의 말에 주의 깊게 귀 기울이고, 있는 그대로 수용한다는 것은 학생의 현실을 인정해주는 것이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곁에 있고 자기를 인정해 주는 이가 있다는 것은 학생들에게는 행복감과 정서적 평화를 주게 될 것이다.

### 학생의 수용을 위하여

공부 잘하는 이, 못하는 이, 개구장이 할것 없이 학생들의 현재 모습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사고방식이 중요하다.

상담교육과정에서 문이해 온 것이다.

“선생님 우리 반 반장이 공부는 잘 하는데 영 인간성이 못되었

어요. 자기의 짝이 지저분하다고 같이 못 앉겠다는 것이예요. 도저히 용납되지 않아 불려서 꾸중을 했는데 이 놈이 우리 반에서 건디지 못하겠다면서 전학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도해야 할 지 모르겠어요.”

상황이 이렇게까지 이룬데에는 교사의 문제가 크다고 본다.

이 학생의 경우 오랫동안 굳어져 온 습관인데 선생님의 명령 하나로 쉽게 개선되지 않는다. 우선은 선생님의 지도가 스며들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간에 신뢰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교사와 가치관이 다를지라도 수용적인 자세로 일단은 자신의 가치관을 유보하고 그 학생의 현재의 마음에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교사의 경우 자신의 기준에 맞추어 판단하고 꾸중을 하였다. 아무리 자기가 잘못하였을지라도 일방적으로 자기의 존재를 무시하려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항을 하게 되는 것이다.

교사의 경우는 자기의 기준에 맞추어 학생을 보았기 때문에 기분이 좋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두사람은 감정적으로 대결상태로 들어가고 서로를 보면 마음이 불편한 것이다. 이럴때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실을 사실대로 볼 줄 아는 사고방식이 중요하다.

교사 자신의 렌즈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학생의 현재의 수준을 비판없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교사 자신의 말수를 줄이고 학생의 말에 경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부는 잘 하지만 현재 이 아이의 현실은 건강한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풀고 있지 못한 것을 그대로 직시하는 것과 현재의 모습으로 변해 온 것에 대해서 이해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의 혼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그리고 단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짝과의 관계를 제외하고 긍정적인 점들을 찾아 그것을 기반으로 부정적인 것들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작은 약속들을 만들어 가면서 행동의 변화를 꾀해 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교사의 사고는 학생에 대한 기준을 100점짜리로 정해놓

고 보니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 아이가 불만스러운 것이다.

### 마음과 마음을 나누기 위한 올바른 대화법

자리를 당장 바꾸어 앉아! 다음부터는 절대로 그런 짓을 하지 말라! 는 식의 명령. 지시적인 말.

한번만 더 말 대꾸하면 혼날 줄 알아라! 는 식의 주의나 협박같은 말.

친구들과는 차별하지 말고 골고루 사랑해야 해! 반장이라면 학급의 아이들을 잘 돌보아야 하지 않겠니? 식의 훈계 설교. 충고의 말.

너는 인간이 틀렸어 등의 비판, 비난의 말...

이러한 말들은 모두 학생의 부족한 곳을 강타하여 인격의 가치를 비하시켜 학생으로 하여금 반항감을 자아내게 하거나 무력감을 자아내게 한다.

자신을 비하시키는 말을 듣게 되면 생애를 통해 학생에게 열등감을 갖게 한다. 교사는 신의 위치에서 성현의 위치에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솔직하게 학생과의 관계에서 느껴지는 기분을 그대로 학생들에게 솔직하게 전달하는 것이다. 교실의 환경 게시물이 떨어져 있는데도 누구도 바로 잡는 사람이 없을 경우.

도대체 이 교실에 눈뜬 사람이 있는거야! 하고 야단치는 대신에 애쓰게 만들어 게시한 것인데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도 누구 하나 바로 가는 사람이 없으니 내 기분이 좋지 않구나! 하고 교사의 마음 상태에 관한 정보를 솔직하게 학생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다.

이같은 대화자세는 학생을 무시하거나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있는 똑같은 인간의 입장에서 자신의 감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학생을 동등한 인격으로 대해주는 것이다. 이 같은 대화법을 상대방에서는 나 전달법이라고 한다. 상대방의 행동이나 생각에

대해서 비판이나 비난을 하지 말고 그것에 대하여 느껴지고 생각 되는 것을 나는 ...게 느낀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교사의 느낌이나 생각의 정보를 정확하게 학생에게 전달해주는 것이다.

### 대립이 생길 때는 무승부 법을

그리고 교사와 학생에게 대립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 무승부법으로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학생의 자주적인 실천의지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토마스 고든이라는 이가 부모교육에서 말한 무승부법의 6단계의 순서를 참조하면 교사의 경우도 효과적인 문제 해결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제1단계 : 무엇에 대한 대립인가를 명확히 한다.

제2단계 : 여러가지 해결안을 내 본다. 머리를 맞대놓고 가능한 해결책을 내 보는 것이다. 학생이 먼저 해결안을 끌어내게 한다. 많은 좋은 안을 끌어내도록 한다.

제3단계 : 나온 해결안들을 하나하나 평가한다. 평가하면서 가장 좋은 해결안을 내도록 한다. 교사와 학생 서로가 받아들이기 힘든 것은 하나씩 제거시켜가면서 좋은 해결책을 찾아낸다. 이때는 교사도 학생도 솔직하게 자신들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한다.

제4단계 : 제일 좋은 해결안을 채택한다.

나는 이것으로 좋다고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냐? 우리 모두가 시험적으로 이것을 해 보자고.

해결책에 약속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종이에 쓰든지 하여 잊지 않도록 한다.

제5단계 : 실행방법을 생각한다. 결정을 내린 후 그것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를 확실하고 세밀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제6단계 : 실행여부를 검토한다.

학생들에게 후한 점수를

지도해야 할 학생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명상해 보고 좋고 궁

정적인 점을 찾아내도록 한다. 당연한 것 같은 것을 인지하여 표현하고 칭찬하여 주는 것이다. 문제가 있을 때도 장점 몇가지를 들어 칭찬하고 학생을 인정해 주는 분위기속에서 문제점을 지적하여 대화한다면 학생의 마음문이 열리리라고 본다.

특히, 사람들은 자신이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때 살맛나는 것이다. 진솔한 칭찬과 인간에 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교사 자신은 인간존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

인간은 전인을 향해 체계를 밟아가는 유기적 존재이다. 인간존재의 내부에는 잠재적 성숙이라는 일종의 인자가 자리하고 있다.

사랑, 겸손, 창의성, 성, 적극성, 독립성, 지식, 성실성 등의 인자를 다 가지고 있다는 신뢰성은 지금 당장 나타난 현상들을 보는데 여유를 가질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학생지도를 포기치 않는 힘이 되어 준다고 본다.

이 신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스스로를 존중하고 잘 가꾸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평소 생활지도에서 학생들의 가능성과 긍정적인 것들을 밝혀내어 주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고 싶다.

#### 학생들의 주체성 회복을 위하여

학생들은 부모님의 잣대에 의하여, 교사나 타인의 잣대에 의하여 눈치인격으로 성장해 간다.

학생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보았듯이 자신들을 인형이나 로버트로 생각하고 있다. 학생이 자기 인생을 긍정적으로 주체적으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사 자신이 수용적인 자세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학생들의 정서를 그대로 수용할 수 있고 감정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허용적인 분위기를 만들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이 우울한 정서들을 억누르게 하지 말고 솔직하고 정직하게 산뜻산뜻 표현하게 하도록 해주고 교사와 학우간에 그 정서를 잘 받아주는 훈련들을 생활화한다면 학생들이 마음의 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마음의 1고수 2명창제도를 생활화 하는 것이다. 상대방이 마음을 표현하면 이를 잘 받아서 메아리를 쳐주는 것이 생활에서 자연스러워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학생들이 눈치인격에서 벗어나 자기식대로 살아가는데 도움을 줄것이다.

#### 농사짓는 농부와 같이

이상에서 학생들의 현실과 이 현실 속에서 교사들이 학생지도에 서 유념해야 하는 바를 몇가지 서술하였다. 참으로 임시 방편적인 것들이지만 그래도 학생들의 질식할 것만 같은 상황에 약간의 바람구멍 역할이라도 하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나열하였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교사는 농부와 같은 심정으로 일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외부적인 큰 작용이 없는 한 대지는 땀 흘린 만큼 대가를 주는 것과 같이 학생들은 피땀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을지라도 결코 벼 앞에서 자랑하지 않는 것 같이 교사가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하였을지라도 학생앞에서 겸손하고 자랑하거나 생색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농부가 보리, 벼, 가지, 호박의 특성이 무엇인지 어떤 조건에서 잘 크는지 알고 농사를 짓는 것 같이 교사는 다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의 조건을 잘 알아야 한다. 언제 물을 주어야 하고 거름을 주어야 하는지 잘 알기 위해서 학생 하나하나의 가슴에 귀를 기울이고 학생들의 눈높이에 자신의 키를 맞추어 보아야 한다.

그래서 교사가 학생들의 원망과 정서를 받아주고 수용해 주었을 때 조금이라도 학생들이 학교에서 정을 붙이고 다닐 수 있는 발판이 될것이다.

그러나 교사가 일반 농부와는 뚜렷한 차이점이 있다면 사람의 인격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도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런만큼 교사는 학생 앞에서 교과서로 설 수 있도록 끝없이 자신의 수양작업이 필요하다.

학생들에게 존경하는 스승이 있다는 것은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정을 붙이게 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청소년 학생!

이들은 하늘 위 땅 아래에서 가장 소중한 어머니의 자식들  
누구나 다 하느님이다.

청소년 학생!

이들은 조국의 어머니들이다.

내일의 새로운 조국을 잉태할 장본인들이다.

이들은 누구나 자신의 삶의 주인이요 사회의 주인이요 우주의  
주인이다.

학교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서든지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될 존재들이다.

## 제2부

### 추모글 · 자료 · 모음

## 분신경과

1991년 5월 18일

5·18 추모제 행사를 학생회 주최로 거행하고 있었다.

입시위주 교육을 거부하고 학생이 교육의 주체임을 강조하는 우리의 결의가 학생회의 한 학생에 의해 낭독되고 다음으로 풍물을 치던 도중 교사 동편에서 화재가 난듯 불길의 솟았다. / 그런데 ... / 강렬한 불길에 휩싸인 채 사람이 뛰어오고 있지 않은가.

나는 놀라 터질려 하는 심장을 간신히 부여잡고 뛰어갔다. 그 불속의 사람은 원을 이룬 학생사이로 다가오고 더욱 놀란 학생들은 옆으로 비켜서며 쓰러지고 울부짖었다.

그 사이로 곳곳이 선채 너무도 선명한 너의 목소리 '이런 잘못된 교육 계속 받을래 새끼들아' 눈 한번 깜짝하지 않고 성내고 있었다. 나는 우선 입고 있던 양복저고리를 벗으며 물가져오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나를 따라 몇몇 학생들이 잠바를 벗어 불을 끄고 있었고 1층 교실에서 던져진 물주전자와 양동이 등으로 불길을 잡았다. 그리고 나서야 그가 철수였음을 알았다. 그런데 내가 막 울부짖기라도 할 판인데 철수는 '선생님 죄송합니다' 라고 또 선생님 등에 업히고 차로 보성병원으로 긴급후송하려 할때 차안에서 '통일의 노래를 불러달라'고 그리고 친구들이 부축하자 '혼자서 걸어 갈 수 있다'고 참으로 기막힌 의연함을 보이기도 했다.

차가 떠나고 한 학생이 주어다 준 쪽지에는 '철수가 통일의 노래를 불러 달라고' 라고 적혀 있었다. 지금껏 영철이가 '철수가 왜 이렇게 죽어야 합니까' 하며 나를 붙들고 울었는데, 그를 애써 달래놓고 학생들이 주저앉고 덩구는 운동장으로 가서 쪽지를 읽어 줬다. 철수를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하고 싶다는 생각 뿐이었고 '잘못된 교육'에 포함된 부끄러운 선생으로서 나는 목청껏 학생들과 울부짖고 그대로 진정되지 않아 계속해서 세 번 네 번 반복하고 있었다.

학생들은 일어서서 돌연 팔짱을 끼고 교문밖으로 진출하기 시작했다. 연락을 받은 경찰은 즉시 싸이렌을 울리고 출동하고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경찰과 부딪치면 학생들 피해가 많을 것이 우려되어 나는 저지해 보려 했으나 허사였다. 결국 교문밖 200m 지점까지 진출한 학생들이 경찰 100여명과 대치하고 시위경험이 없는 학생들이 소강국면에서 설왕설래하고 있을때, 학생대표 몇명을 뽑아서 가보라는 한 선생님의 충고를 받아들여 학생 10여명과 함께 병원으로 북을 울리면서 갔다.

병원에서는 응급조치를 하고 구급차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학생들은 계속 열려진 차창속으로 우리의 소원을 불러주고 있었고 철수는 특유의 빛나는 눈빛과 곧은 응시로 우리들에게 뭔가 응답하고 있었다. 구급차가 간병을 위해 따라나선 영철이와 성복이를 태우고 떠나고, 다시 북을 울리고 '우리의 소원'을 부르면서 학교로 돌아오는데 연락을 받은 철수 부모님이 병원쪽으로 오고 있었다. 어머니는 거의 낫이 나간 듯이 보였고 아버지는 눈물이 맺힌 허탈한 표정이었지만 그래도 약간은 이성을 회복한 듯 보였다.

전대병원으로 이송되었을 것이니(물어봐도 어디로 간단 말도 않고 구급차는 떠났지만 가는 방향으로 봐서 전대병원일거라 생각함) 빨리 가보시라고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알고보니 행정기관에서 온 사람들로부터 모종의 회유를 받고 5시간 후에야 병원에 나타났다 한다.

하야간 학교에 오니 학생들은 학교 진입로에 모여있었고 비교적

진정은 되었지만 아직도 허탈한 표정으로 울고 있었고 몇몇 학생들은 수습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하러 갔다. 아무 결론없이 돌아온 학생들은 나에게 철수의 며칠간의 행적을 얘기해 주었다. 그것은 16, 17일 친구 자취방에서 잤는데 단식을 했었다고 한다. 그것은 지금 생각하니 깨끗한 모습으로 분신하려고 해서 그랬을 것 같다는 얘기와 며칠전 열사들의 약력을 보고는 숙연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는 것 등이었다. 교장선생님께 수습대책을 논의하러 교무회의를 긴급히 열자고 2~3차례 촉구했지만 거의 정신이 없는 듯이 보여 포기했다.

학생들은 어떤 기자가 학교사진을 찍는데도 못하게 막고 있었고 철수사진을 학생사진첩에서 찍어가는 것도 못하게 할 정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한편 전화로 분신사실을 묻는 학부모 전화 1통과 로이터 통신의 전화를 응답해 주고 나니 순천 검찰청에서 나온 검사와 경찰, 장학사들이 나를 불러 취조했다. 진술서를 쓰고 하는 도중 한겨레 신문 등의 3차례 전화를 받지 못했다. 달려온 기자들에게는 내가 본대로 얘기를 해 주었다. 한편 보성재야단체(전교조, 농민회, 일꾼 사랑방)와 신민당이 합세하여 재빨리 '김철수군 분신 보성대책위원회'가 꾸려지기도 했다.

## 상황일지 (5.18~7.20)

### 5월 18일:분신

#### 5월 19일

1. 전교조 전남지부가 '학생들에게 드리는 호소문'에서 극단적인 죽음의 방법을 통해 싸우기 보다는 살아서 함께 싸울 때 힘이 될 수 있다'면서 학생들 자제를 요청
2. 전대병원 앞에는 '김철수 학우 분신 고교생 대책위원회' 명의의 '광주지역 고교생에게 드리는 호소문'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이 배포되고 고교생들의 시위참가가 눈에 띄게 늘어남.

#### 5월 20일

1. 제2, 제3의 분신이 있을지 모른다는 소문에 바짝 긴장한 학교당국에서는 등교하는 학생들을 저지.
2. 교사 일부와 학생들은 항의하기도 했고 운동장에서는 학생 400여명이 집회를 가졌다.(이들은 전날 전단 2,000장, 대자보 8장, 걸개그림 1점을 준비)

#### 5월 21일

1. 광주에서 내려온 홍보물을 새벽 5시경 읍내로 배포.
2. 10시에 보성역 앞에서 '김철수 정신 계승 집회'를 가질려 했으나 전경의 봉쇄로 11시 20분경 40명으로 간신히 시작했고 경찰의 집요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200여명으로 불어남(학부모들이 자기 자녀를 데려가기 위해 집회현장에서 손을 끄는 등의 장면도 나옴)
3. 이 집회에서 '김철수 학생 분신 속보'와 '철수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선생님의 호소문'이 배포되어 병상상황과 자해행위 금지가 호소됨.

4. 집회후 학생들은 집회장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선생님들의 지도하에 귀가.

5. 10여명 학생들은 조선대 집회에 참가하여 철수의 뜻을 적극 홍보함.

#### 5월 22일

1. 보성역 광장에서 2차집회를 가짐(10시 30분경 약 300여명 참가)
2. 경찰당국의 사전허가가 있었음에도 정보과장이 식순을 압수하고 경찰이 포위(과 청년들이 동원되기도 했고 경찰은 집회에 참가하는 학생을 방패로 등을 치거나 머리채를 당김)
3. '철수야 민주위해 일어나라'라는 프랑카드를 들고 연좌시위를 벌임.
4. 벌교와 복내 등지에서 분신의 의미를 알리는 유인물을 배포하던 네명의 학생이 연행되었다가 풀려남.
5. 자발적으로 모금운동을 벌임.
6. 보성고 학생대책위원회는 다음날 부터는 교내집회로 전환한다고 발표함.

#### 5월 23일

1. 철수는 의식이 회복되어 물을 요구하고 손짓으로 의사 표현.(철수어머니는 안타까워 물을 한두방울 떨어뜨려 주기도 함)
2. 호흡곤란과 고열증세 등으로 회복가능성이 희박해 보임.
3. 보성고 학생대책위원회(학생회 포함)와 교사·학생대책위원회가 꾸려짐.
4. 교내집회가 연락두절과 부모님들의 자녀단속, 행정기관까지 가세한 등교 저지 등으로 무산됨.
5. 교사·학생대책위원회가 모여 집회를 자제하고 홍보기간 설정하기로 합의.



6. 보성고 교사 일동은 '김철수군 분신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채택하고 참교육과 통일열망을 왜곡하지 말 것과 배후조종설을 조작하지 말 것을 주장함(병원 부착 및 보성지역 한겨레신문 간지에 끼워서 배포함)

### 5월 24일

1. 보성군 의원들이 우리의 입장을 발표.
2. 광주지역 고교생 대책위원회가 만든 '참교육의 함성으로'라는 유인물 배포됨.
3. 김철수 학생 분신 속보가 배포됨.

### 5월 25일

1. 보성고 학부모일동이라는 출처분명의 유인물이 보성군내 각 일간지에 끼워서 배포됨.
2. '죽음을 선동하는 반 생명적 배후세력, 그들은 과연 누구인가'라는 박홍 서강대 총장 인터뷰기사가 복사되어 함께 끼워져 있었음(배후조종설 조작)
3. 순천에서 전남지역 고교생 집회가 6월 8일 결정됨(철수군 사망으로 무산됨)

### 5월 26일

1. 학생들이 화염병을 만든다는 소문에 의해 경찰이 자취방 등을 수색.
2. 부산, 대구, 전주, 서울 등 각 지역 고등학생들이 잇따라 병실을 방문, 격려문을 만들고 학생대책위와 이후 연대방안을 논의.

### 5월 27일

1. 22일 역전집회 때 집회 결사자유의 억압에 항의하여 전교조, 신민당 보성지구당, 남총련, 농민회원, 보성고 재학생, 교사 등이 항의시위(서장사과요구 끝내 사과하지 않음)
2. 보성고 학생들은 철수의 쾌유를 빌며 학교 진입로에 칸나와

다알리아를 심음.

**5월 30일:** 오후 5시경 철수가 유언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 녹음기, 카메라를 준비하고 대책위, 부모님을 모시고 유언을 녹음함.

### 6월 2일

1. 철수운명: 오전 7:00경부터 급격히 맥박이 불규칙해지자 담당 의사 부모님이 달려와 회복을 위한 노력을 4시간 동안 했으나 끝내 운명.
2. 전대병원과 보성고 교정, 대책위원회 등에 빈소 마련.
3. 전교조 성명서 발표.

### 6월 3일

- 보성고 학생 재야단체 등이 장례식 준비 등을 본격화 함(8일 장 결정)
- 장례식에 필요한 인원 1,200여명을 보성고생들을 중심으로 전남·광주지역 고등학생들을 장례조직으로 조직화 하기 시작(당시 전대협 출범식 등과 겹쳐 국민장에 대학생들 결합이 불확실한 상황)

### 6월 4일

사수대를 편성하여 보성고 학생들 조별로 조문단을 편성, 영안실 방문(당시 고등학생 움직임에 대한 방해가 심해 조직확인 작업과 함께 진행)

### 6월 5일

'애국 고등학생 고 김철수열사 민주 국민장'으로 공식 명칭을 정하고 구체적 절차 등을 관계자들이 협의.

### 6월 7일

1. 사수대 150여명 전대병원앞 집회
2. 보성고 학생들 영결식 준비하기 위해 교실에 라면박스 등을 감.

### 6월 8일

1. 장례식 참가학생 680여명 광주 도착하여 광주·전남지역 고등학생들과 결합. 국민장.
2. 입관식을 시작하여 전대병원 앞은 울음바다.
3. 장례행렬 2,000여명 화순. 남평. 능주. 벌교. 보성을 거쳐 보성고 교정에 철수군 영결식장 마련.
4. 보성역전 집회 가짐(전교조 주관)
5. 보성고 교정에서 학생회 주최의 추모행사(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거행. 많은 비 속에서 상여를 옮겨 놓기도 함)

### 6월 9일

1.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보성고 교정에서 영결식 거행(11시)
2. 오후 3시 백운동 까치고개 도착(차량 20여대, 운구및 조문객 2,000여명)
3. 광주시민들의 위로와 격려 받고 도청으로 행진.
4. 약 7만여명 운집한 가운데 도청노제 거행(7시)
5. 망월동 도착(12시)
6. 하관식(12시 30분) 거행

### 6월 12일

망월동 5.18묘역에서 삼우제 거행(약 60여명 참석)

### 7월 20일

1. 보성고 학생 3명과 유족 대책위원 참석한 가운데 곡성 쌍륜사와 망월동 묘역에서 49제 거행.
2. 전남대 광장에서 광주·보성지역 학생 200여명 참석한 가운데 추모행사 및 문화행사 가짐.

## 병 상 일 지

이 병상일지에 철수 친구들의 눈물이 젖어 있다.

5월 18일 10시 15분:분신

18시 40분:물핀 맞고 안정

— 여기에 또 한 젊은이가 누워있다.

열아홉 꽃다운 청춘의 김철수!

누가 네게 이 아픔을 주었는가?

누가 이 시대의 아픔을 혼자서 몸으로 받아 안으려 하는가?

5월 19일 03시 05분:철수는 지금 체온계를 물고 있습니다.

철수의 고통을 반이라도 나눌 수 있다면 정말 소원이 없겠습니까.  
(현재 맥박 1491분)

5월 19일 09시 00분 : 의식없음

5월 19일 10시 20분 : 경련 심해짐

5월 19일 17시 09분 : 늦게사 노폐물을 빼서 미안하구나.  
밖에 일이 좀 생겨서.....

5월 19일 19시 00분:철수의 몸에서 살 썩는 냄새가 난다.

철수의 모습을 좀더 자세히 보려고 철수 얼굴 가까이

다가셨는데. 마스크를 한 상태에서도  
냄새가 내 머리 깊숙히 파고 들어온다.  
정말 철수의 고통을 나누고 싶다.  
미안하다 철수야...

**5월 19일 20시 30분** : 철수는 아직 의식이 없다. 다만 고통을  
못이겨 다리를 움직인다.

**5월 20일 02시 10분**: 새벽이다 철수야! 잘 참아라

**5월 20일 02시 42분**: 철수의 분당 맥박수(131/분)

**5월 20일 07시 03분**: 철수의 맥박수(120/분)

**5월 20일 14시 53분**: 철수야 힘내라. 철수야 너한테  
말하나 제대로 못하는 선배가 되어 버렸구나.  
철수야 네 말대로 내가 못한 일을 우리가 꼭 할게.  
철수야 용기를 잃지 마라. 노태우정권 타도!

**5월 20일 13시 09분**: X-레이 촬영  
철수가 의식을 되찾은 후 심한 고통을 느낀다.  
하지만 너의 그 고통을 어찌 글로 표현할 수 있겠니...

**5월 20일 13시 43분**: 현재 맥박수(148/분)

**5월 20일 18시 31분**: 현재 맥박수(132/분)  
철수야 밖에서는 승희누나 추모를 위한 집회가 계속 열리고 있  
다.  
네가 의식을 되찾았을 때 너의 옆 병실에 있던  
승희누나가 사망했다고 말하지 않았어.  
철수야 정말 미안하다. 난 너를 위한다고 그랬어.

꼭 일어나서 승희누나 묘지에 같이 가서 묵념을 하자꾸나.

**5월 20일 20시 20분**: 철수가 의식이 돌아옴.  
음악을 들으려 함. 입으로 호흡하려 함.

**5월 21일 05시 12분**: 철수는 지금 '타는 목마름으로' 라는 노래  
를 듣고 있다.

**5월 21일 08시 38분**: 철수가 다시 깨어났다.  
내가 몇가지 질문을 하니까 응답을 해주었다.  
'철수야 부모님에게 조금은 미안하지...' 하고 물으니  
'응' 하였다. 그다음 '철수야 너의 뜻이 전국으로 파도처럼 퍼  
져나가 기쁘지?' 하고 물으니 '정말?' 하고 '확' 하였다.

**5월 21일 09시 07분**: 지금 철수는 밥 대신 진통제를...

**5월 21일 15시 50분**: 철수가 계속 계속 물을 갈구한다.  
우리가 진리를 갈구하듯이  
철수야 참고 견뎌라

**5월 21일 19시 45분**: 현재 맥박수 146/분

**5월 22일 07시 46분**: '엄마 물좀 줘' 하고 철수가 소리침. '음료  
수 줘'  
'엄마' '엄마' '음료수' '음료수'...

**5월 22일 10시 18분**: 현재 맥박수 144/분  
친구인 나의 목구멍에는 시원한 음료수가 넘어 가지만  
철수의 목은 태양처럼 뜨거운 갈증에 시달린다.

**5월 23일 12시 34분**: 현재 맥박수 129/분

5월 광주의 병원은 처참하다.

노정권의 공안통치와 백골단의 무차별 휘두르는  
쇠파이프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5월 23일 02시 45분:**철수는 영원히 우리 민족사에 남을 것이다.

한 젊은이가 짊어진 십자가. 그것은 보통사람의 집념과는 다르다. 초인이 아닌 이상 이러한 일을 할 수가 없다.

불이 붙은 상태에서 뛰어나와 쓰러지지 않았을 때의 그 집념을 누구도 당하지 못할 것이다. 앰블런스에 실릴 때도 철수는 "선생님 저는 걸어서 차에 타겠어요. 저는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는 말에 뜨거운 눈물이 흘러 내렸다.

-철수는 장한 민중의 아들이요, 또한 장한 민중의 열사입니다.-

**5월 23일 06시 12분:**철수는!

한 시대에 머무를 수 없기에 길을 떠난 것이다. 또한 뒤에서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입지(立志)를 주기 위해 그 멀고, 어렵고, 괴롭고, 험난한 그 길을 외롭게 혼자 떠난 것이다.

우리 모두 자기 스스로에게 '철수에게 무엇을 해주어야 할 것인가'를 좀 더 그리고 한번 더 생각해서 뜻과 행동방향을 다시금 더 강하게 세우자.

**5월 23일 12시 55분:**철수가 고통스러워 한다. 분신이후에 가장 고통스러워 한다.

엉덩이살이 달라 붙어서 아프다고 한다. 철수 살이 정말 시트에 달라 붙어서 고통스러울 것 같다.

자꾸, 고통스러워 하면서 숫자를 센다.

1, 2, 3, 4, ……

숫자소리가 안나오는지 '악', '악' 하며 소리만 지른다.

철수야! 힘내자!

**5월 23일 13시 52분:**여기 한 많은 남도의 젊은이가 입술을 깨물은 채 고통을 참고 있다.

고교생의 순박성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해버린 한 많은 남도의 젊은이가, 하지만, 잘 견디고 있다. 점점 더해가는 한많은 남도의 젊은이의 살 썩어가는 냄새. 이제 이 냄새는 향수처럼 느껴진다.

**5월 23일 13시 57분:**심장 그래프가 심상치 않다.

그래프가 해일 치듯이 변동이 심하다. 철수가 혼자 있고 싶다고 한다.

**5월 23일 15시 07분:**현재 체온 37℃ 9', 현재 맥박 136/분

**5월 23일 15시 20분:**철수의 가제를 제거하였다. "철수야 시원하니?" 하고 물으니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철수! 화이팅!

**5월 23일 16시 30분:**철수는 지금 물편을 맞고 잠을 청한다.

**5월 23일 19시 01분:**아주 상태가 좋지 않다. 그래프의 요동이 심하다. 오늘 밤을 넘기려는지 정말 난감하다. "철수야 힘내!"

**5월 24일 7시 00분:**오늘따라 웬지 비가 하염없이 온다. 내일 승희누나의 장례식이다. 슬픔을 추모하는 비일까? 계속 내리는 빗줄기를 보면 볼수록 철수와 옛날 뛰어놀던 생각이 자꾸 난다.

**5월 24일 12시 15분:**철수에게 체온계를 물려주니까 이것이 물호수인 줄 알고 쪽쪽 빠는 것이었다.

철수야 미안하다. 너에게 물 한모금 주지 못하고.

**5월 24일 12시 17분:**철수가 자꾸 밖으로 나가자고 말을 합니

다. '나가자, 빨리 나가자!'

**5월 24일 12시45분:**철수가 자주 집에 가고 싶다고 한다.

'빨리 보내줘' '빨리 보내줘' 하는 철수의 말에 내 마음은 비수로 에는 듯이 아프기만하다. 철수야 살아서 걸어나가자. 철수 화이팅!

**5월 25일 00시 54분:**난 보고 싶다. 철수의 건강한 웃음을

**5월 25일 04시 40분:**철수가 병중이의 환상을 본 것 같다. '책가방 챙겨'

**5월 26일 12시:**철수는 집에 가고 싶어한다. 어제는 병실이 집인 줄 알고 기뻐했다던 철수의 힘없었던 말 지금은 고통의 경련으로 전신이 떨리고 있다.

**5월 26일 02시 12분:**맥박지수 상승 144/분 체온증가 39℃

**5월 26일 07시 45분:**거즈를 갈아줄려고 하니 고개를 흔들었다. 내가 낮설게 느껴졌나 보다.

**5월 26일 9시40분:**탄 껍질이 점점 벗겨지는 철수의 얼굴. 철수는 반드시 살아나며 헌껍질을 버리고 더욱더 강하고 굳세고 새로운 철수가 될 것이다.

**5월 26일 14시 14분:**소독제를 뿌려 소독시켜 주었다. 현재 맥박 116/분

**5월 26일 15시 25분:**철수야 대구지역 학생들이 왔다. 널 위해서 연대투쟁을 하고 있는가봐. 지금 널 위한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5월 26일 19시 36분:**철수의 호흡 능력 떨어짐. 체온상승 수술실로 들어감. 철수야 힘내라(수술실-)

**5월 26일 21시 40분:**철수야 일어나서 달리자.

철수가 수술 받는 도중에 그 고통을 표현하지 않고 미소를 띄운다. 정말 철수의 정신력은 꼭 본 받아야겠다.

**5월 26일 22시 28분:**철수가 자기의 영원한 침대를 학교 뒷산에서 망월동으로 해달라고 했다.

**5월 26일 23시 26분:**난 지금 토마토를 먹고 왔지만 철수는 지금 수면제를 맞고 잠을 청한다.

**5월 26일 23시 45분:**철수는 연속 잠을 청하고 있다.

하얀색 붕대가 검붉은 피색으로 되어 있었다. 소생되지 않은 죽은 피의 색으로 말이다.

먼저 죽음의 절벽 앞에 선 철수의 검붉은 피.

**5월 27일 03시 22분:**철수야 넌 인간의 한계를 넘어섰어. 널 존경한다. 너의 깊은 뜻을 온 세상에 전하겠어. 꼭, 꼭... 또 기성세대를 깨우치겠다.

**5월 27일 04시 17분:**겁난다. 철수야 제발 떨지마!

현재 맥박수 128/분

**5월 27일 04시 35분:**누가 너를 이토록 고통받게 했니.

**5월 27일 05시 22분:**인공호흡기 부자소리가 울릴 때마다 내 가슴은 덜컥 내려 앉는다.

**5월 27일 05시30분:**또 부자가 울린다. 무섭다.

5월 27일 05시45분: '철수야 어디 아프냐' 하고 어머니께서 물음. '안아파요' 함(목소리 나오지 않음-입모양만)

5월 27일 05시51분: 철수의 살 썩는 냄새가 나의 속을 뒤집어 놓는다.

주여! 우리들에게 평안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5월 27일 08시 23분: 가끔씩 여전히 발을 떨고 있다.  
현재 맥박수 153/분

5월 27일 08시49분: 철수야, 11일째 밤낮없이 병원 벤치에서 너 완쾌되기를 기다리며 지새우고 있다. 형이 자기 눈을 갖지 못하고 야단치고 사무실에도 못오게 해서 미안하다. 빨리 완쾌되어 풍물을 신명나게 쳐보자꾸나. 미친 듯이. 이땅 한반도에 자진모리 휘몰아쳐라 —형—

5월 27일 09시32분: 철수가 물을 주라고 미칠 듯이 발악한다. 가제에 물을 적서 입에 올려주자 마치 입속으로 넣어 이빨로 와그작 와그작 씹어 물을 만들어 먹는다.

5월 27일 09시45분: 어제 철수가 어머니에게 하는 말이 「엄마 오늘밤 같이 자. 내일이면 마지막이야」이었다. 그리고 유언을 하고 싶다고 해서 부모님을 부르고 기자를 찾고 고등학교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대책위에 연락했다.

철수는 하고 싶은 말을 마치 정리나 해놓은 듯이 일목요연하게 말을 마치고 맨끝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라고 말했다.

나오지 않는 말을 억지로 하면서 아직도 분신 직후에 외쳤던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철수가 고통을 이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아직 철수를 왜곡하는 사람이 있으니 안타깝다. 어제 철수의 유언을 녹음했을 때 어머니께서는 이 내용을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번 들려줄 것을 당부 또 당부했다. 이

는 철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 많고, 그 뜻이 잘못 퍼뜨려질까봐 안타까워 그러시는 것 같다.

이제 유언을 끝으로 철수의 음성을 더 들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다. 철수는 나에게, 동료 학우에게, 전국 모든 학생들에게, 어른 부모에게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가르쳤고 이 가르침을 받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 철수의 뜻은 길이 길이 같고 닦아져 마침내 철수는 자신의 몸을 태워 자신의 뜻으로 부활하리라.

5월 27일 13시 44분: 현재 맥박수 141/분

5월 27일 20시 53분: 철수는 고통 때문에 손을 흔든다. 철수의 손은 거의 검정색으로 변했다.

철수의 붉은 피가 점점 검정색으로 변해간다.

5월 28일 04시51분: 산소공급 중단  
현재 맥박수 109/분

5월 28일 08시03분: 아버지: 다 나셨다.

철수: 예, 단식을 5일째 했어요

엄마: 형, 갈때 굶었냐?

철수: 모르겠어.

아버지: 잘 했다고 생각하나.

철수: 아니요.

철수: 나 약 뭐뭐 먹냐?

나: 항생제, 포도당, 강심제... 등등 혈관으로 맞고 있어 알겠냐!

철수: 응

5월 28일 08시12분: 철수: 발좀 잘라 버려라

나: 왜

철수: 너무 아파

나:.....

5월28일 09시50분: 철수가 '공부하고 싶다'고 말했다.

무슨 공부할래? '영어공부' 스펠링 자 suction "씩 - 셸". "공부를 안하니까 여기에 도저히 못있겠어"

"아니. 여기서 앉아서도 할 수 있어. 그런데 일어날 수 있겠냐"

"일어설 수는 있어" "몸이 아픈데. 그럼 내일 하자"

"안해" "왜" "오늘부터 할꺼". "같이 공부하자"

"손이 안 움직이는데" "그래도 움직일 수 있다"

"나 휴학할꺼야"

## <추 모 글>

### 철수여! 천만 학우의 사랑이여

정 경 호(보성고 교사)

눈시울에 맺힌 눈물 닦을 겨를도 없이  
새롭게 돋는 눈물  
곧고 어진 성품을 생각하고는 더욱 안타까운  
한숨으로 닦아 들인다.

어디서부터 너의 외로운 싸움이 시작되었는지  
언제부터 너의 뜨거운 목마름이 네 살갓을 태우고 있었는지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었구나  
그렇게도 평범하게만 대했었구나  
용서해라  
아니 뜨거운 교육애로서만 용서받고 싶구나

아직도 너의 거친 외침이 들릴 듯 한데  
우리는 낮부끄러운 우리는  
복받치는 열정을 안으로 안으로만 삭일 수 없다  
장하게 보듬고 살아가리라  
민족·민주·인간화 교육  
그래  
거듭나는 교육, 거듭날 통일조국의 미래로 바친다.  
네 이름 석자 김·철·수를……

너의 곁은 의기·염원·사랑을…….

내사랑 철수야. 아니 천만학우의 사랑 철수야  
내키지 않은 걸음을 끌고 우린 너를 묻으려 한다  
하지만 결국 마음 속에 묻고 돌아오리라  
가슴깊이 아직도  
쓰리지만 한 눈물 합장하고

지축을 흔들 것만 같은 너의 목소리가 들려오며는  
고래사냥을 마음껏 불러주리라  
최후의 순간까지 맑은 눈으로 부르던  
우리의 소원을 불러주리라  
피 끓는 애정으로  
피 터지는 맥박으로

철수야  
부디 뒤돌아보지 말고 가거라  
뛰놀던 운동장  
친구와 후배들의 울음소리 들리는 교실  
모두 너의 혼이 묻어나고 있단다

철수야  
부디 편안히 잠들거라  
무덤 속 같은 고토로  
너를 외롭게 하지 않을터니

우리 모두의 사랑

철수야. 천만 학도의 사랑 철수야

1991. 6. 7 보성고 운동장 영결식장에서 낭송됨.

## 결코 잊을 수 없는 음성

박 효 수(보성고 교사)

널 기억한다.  
용추골 때 사나운 모기때  
휘휘 손으로 내저으며  
'기나긴 밤이었거든  
죽음의 밤이었거든'  
목청 깊이 밤하늘에 뒹뒹 떠돌 때에도

널 기억한다  
그 시샘많은 햇빛이 눈부셔  
고개돌려 눈길 멈추었을 때  
타오르는 햇불로 내 망막을 짓누를 때에도

널 기억한다  
그렇지 않아도恨이 지천인 망월동에 널 높히고  
짙은 어둠 가르며 구호 몇개 스친  
빈 주먹에 눈물 고일 때에도

국화 한 송이  
네가 떠난 교실  
책 하나 분필 둘 들고 들어설 때



그 빈 책상에 망연하게 걸린  
국화 한 송이  
내 쓰러진 양심과 불감증과 무기력  
그리고 네 목소리

아! 잊을 수 없다  
결코 네가 내뱉은 음성을 하나하나도  
결코 잊을 수 없다.  
내가  
부르던 그 떨리는 음성  
결코 잊을 수 없다.

아무리 고통이 엄습하고  
아픔이 등을 시린다 해도  
이제는 널 보내고 나에게 남는 건  
분노뿐

널 기억한다  
손에도 등에도 머리에  
심장에도 열정으로 불을 지펴  
내가 밝혀준 길  
끝끝내 걸어가  
우리 참세상에서 힘차게 만나자꾸나

철수야  
널 결코 잊을 수 없다.

## 하나님, 철수를 우리 철수를 보살펴주세요

이 외 숙(보성고 88 졸업생)

붉은 연기 속에서 맑은 눈동자를 본다  
조국을 위해 영혼을 바친 열사  
보성고 3학년 5반 김 철 수

너에게 우리는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너에게 우리는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  
시대의 아픔으로 얼룩진 네 앞에서...

장미꽃으로 쓰러져간 5월  
해일처럼 일렁이는 민중의 함성!  
억눌린 우리의 가슴으로  
친구들의 눈속에서 타올랐던 너의 목소리는 위대했다.

아!  
끓아터진 너의 청춘을 누가 알까!

어머니. 아버지. 선생님!  
언제쯤 우리에게  
민중이 주인되는 세상을 주실 겁니까?

우리는 갖고 싶습니다.  
 완전한 민주주의!  
 통일된 조국을!  
 그런 세상에서 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어머니들이  
 울어야만 하는 겁니까?

철수야  
 한번만 대답해다오  
 내가 진정으로 바라던 세상  
 내가 사랑하는 것  
 너를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고 있다  
 최루탄에 흘리는 눈물이 진정한 자유가 아님을!  
 너의 고통이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을...  
 그리고  
 너를 다시는 볼 수 없는 현실이 있음을...

철수야  
 네 심장의 고동소리가 듣고 싶다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사랑하며 사는 모습을 보고 싶다

망월의 녀들이여!  
 우리 착한 철수를  
 당신들께 보냅니다.

달님이여!  
 철수를 지켜주소서  
 이 땅에  
 철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세상을 흰히 비추소서

철수야  
 부디 보성을 잊지 말아다오  
 너의 부모와 고향은  
 너를 사랑한다  
 철·수·야.....

— 졸업생 이외숙은 병원 중환자실 구석진 곳에서 눈물로 시를  
 써내려갔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탄식할 듯한 소리로 이렇게 말했  
 다.

— 하나님  
 철수를, 우리 철수를 보살펴 주세요.—

## 철수의 오월

김 수 미(보성고 3년)

서러운 오월의 하늘에 너의 뜨거운 육신을 타오르게 하고  
 척박한 유월의 하늘에 우리는 말없이 너를 보낸다.  
 이 땅의 민주화를 외치며 쓰러져간 선배 열사들  
 쇠파이프에 최루탄에 맞아 죽을 수 밖에 없었던 우리의 동지들  
 하지만 이 세상의 슬픈 분노는 계속되고  
 너는 영안실에 차디찬 시체가 되어 누워있구나.  
 이제 심장의 고통도 긴박감도 없는  
 그저 너의 영혼이 있는 곳으로 걸어 가거라  
 황폐한 광야일지라도  
 그곳 들풀의 떨림은 아직 멈추지 않았다  
 지천으로 피어제친 흔해빠진 들꽃들이지만 지치지 않은  
 꽃송이들의 떨림은 계속되고  
 동암다리 밑으로 흐르는 강물을 따라서  
 철수의 냇이 흐르고  
 푹푹한 살내음 흠내음만 나는 교정에서  
 너로 인하여 솟구쳐오는 참교육 함성이여  
 무서운 숙명의 아픔이나 슬픔도 함께 나누자는 우리의 뜨거운  
 사랑으로  
 내가 사라져간 운동장 한가운데에 천이백 학우의  
 해맑은 웃음으로 다시 너를 깨어나게 하리라

여기 어둡고 컴컴한 풀이 있다  
 향냄새만이 자욱해 철수의 향기가 되어버린 분향소  
 찬새벽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도  
 찬이슬 내릴 때까지 빈소를 지키는 친구들도  
 향기없는 꽃의 시든 꽃잎들도  
 모두 부활의 노래로 승화될 수 있는 것은  
 불을 쫓아 끊임없이 치솟는 불나비의 서러운 몸짓같은 처절함이  
 니라

말없이 꽃은 지고 여름밤은 깊어만 간다  
 오늘같이 비가 내리는 날 따뜻한 방안에  
 누워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해 하는 안이함 보다는  
 이제 비내린 후의 맑은 하늘을 바라고  
 그 속의 신선한 공기를 갈구함시오  
 이제 시원한 소나기 소리도 아쉽지 않고  
 우리의 심장을 울리던 징소리조차 아쉽지 않음은  
 바닷가 파도처럼 하얗게 부서지는 포말은  
 곧 다시 하나가 될것이기예  
 그러므로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너를 부른다.

— 보성고에서 대책위 부위원장으로 매일 분향소를 지키면서 단  
 식으로 결연한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으며 지금도 자신의 능력이  
 부족함을 원통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고백한다. —

## 네 뭇까지 살아 투쟁할께

정 병 종(보성고 3년)

철수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병실에도 자주 못가는 이 못난 병종을 용서해 줘. 철수야

병종이는 철수 네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내 몸을 바치는 일까지라도

씩어가는 네 살 대신 나의 살을 주고 싶지만 자기 살이 아니면

안된대. 그 말을 듣고 난 많이 울었어

철수야!

빨리 회복해서 자취방에 가 우리 함께 100원짜리 라면 끓여먹자

그리고 내일을 위해 열심히 뛰자

철수야. 힘내

너를 의지하며 1년 반동안 살아왔는데 이제는 누구를 믿고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

나도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때도 많아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곳곳히 견디는 널 생각하면

그런 생각마저 사치란 느낌이야

그리고 난 남아서 네가 몸부림으로 외쳤던 참세상 실현을

위해 싸워야 하겠지.

철수야 보고 싶어. 사랑해

내가 장가가서 아들을 낳으면 네 이름을 따서 철수라고 부를래

너처럼 당당하게 키우기 위해

병원에 와도 널 보기가 힘들구나! 하늘의 별따기보다

더 많아

20년동안 살면서 가장 슬퍼

요즘은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 공부도 잘 안돼

수업시간에 필기할 때에도 너의 이름만 쓴다 철수야

하지만 약해지지만은 않을께

철수야!

내가 네 뭇까지 살아서 꼭 너의 뜻을 위해 투쟁할께

철수야 빨리 완쾌해서 돌아올 날을 빈다

안녕!

— 이 편지를 쓴 병종이는 철수의 같은 반 짝으로 가장 친했으며 실지로 풍물패와 준거집단 등 모든 것을 함께 한 절친한 사이임 —

## 철수의 고백

친구

새로움을 추구해야만 하는데  
이렇게 오월의 하늘은 뜨거워만 간다  
웃음 지을 수 있는 저들의 따스한 가슴 속을  
나 역시 가질 수 있느냐 오월이여  
눈가의 서린 눈물을 나는 저 메마른 풀잎으로 외쳐본다  
종말로 치달는 나의 찢겨진 가슴  
아아 그것이 아닌데……  
적어도 나는 가슴 한복판에 십자가를 지고 간다

물질세계에서 초라한 어깨위에 大義를 지는  
무엇을 해야할 지도 모르는 새의 빈 가슴이야  
그리움으로 그리움으로 부르짖는 민주주의여!  
누구를 위한 외침인가?  
무엇을 위한 투쟁인가?  
이 현실은 아직도 봄기운이 없고  
겨울로 겨울로 겨울로만  
깊숙히 묻혀져만 버렸다.

1991. 5. 20  
사랑하는 친구가

## 철수오빠에게 바치는 글

안 진 선

오빠의 숭고하고 거룩한 죽음앞에 눈물밖에 흘리지 못했던 저를  
한탄하면서 이 글을 씁니다.

어쩌면 이 글을 쓸 자격조차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산에 산에 진달래와 개나리가 이 봄을 더욱 화려하고 아름답게  
장식해 주고 햇살은 더욱 눈 부시고 따사로워 집니다. 하지만 지  
난 5월만큼은 눈부시지도 따사롭지도 화려하지도 않을 거라는 생  
각이 듭니다.

비가 내리는 날이면 빗방울속에, 안개가 자욱하게 끼는 날이면  
안개속에 오빠의 그 초롱초롱한 눈망울과 묵직한 입, 오탁하게 솟  
아 있는 코 등 오빠의 모습.

하나 하나를 떠올려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러도 불러도 대답이 없을 오빠를 들리지 않을 목소리로 힘차  
게 불러 봅니다.

오빠! 우리집 뒷산에 피어있는 진달래처럼 평양에도 화사하게  
진달래가 웃음짓고 있겠죠?

얼마전 오빠를 찾아갔을 때 오빠는 절 반갑게 맞아주셨지요. 그  
런 오빠앞에 무릎을 꿇을 수 밖에 없었던 제 가슴은 찢어질듯 아  
프면서도 원망스러웠답니다.

그 누가 꿈 많고 부풀어 있어야 할 오빠의 모든 것을 송두리채  
빼앗아간 채 우리들 가슴속에 묻혀 있게 했는지, 그 누구의 잘못

이며 언제 어디서부터 잘못 되어왔는지 알수 없지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잘못이 있고 그것을 느끼면 깨우쳐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오빠 저에게 웃음 지으며 말했어요.

비록 나의 모든 것을 버렸지만 난 민중의 아들로서 너희들의 가슴속에 남게 되어 기쁘다며 언제까지나 우리들 곁에 남아 있겠다고'

그래요 오빠!

언젠가는 오빠가 바라던 그런 날이 올 거예요

고통스럽고 힘든 나날이 있기에 희망차고 즐거운 날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늘 함께 숨쉬고 같이 생활하지는 못하지만 항상 우리들 곁에서 지켜봐 주시고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를 심어 주리라 믿습니다.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등불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철수오빠!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눈부시던 그때 그날이 —

그때 함께 눈물 흘리며 굳게 맹세했던 사람들도 하나 둘씩 떠나가기 시작하고 서야할 자리를 몰라 엉겨주춤하는 사람도 많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은 괴로워하며 안타까워해 봅니다.

학교에서도 면학 분위기와 정상화만 부르짖고 보성고 학우들 가슴속에까지도 그 뜨거웠던 5월의 하늘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직접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도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아니, 어찌면 이해하기 싫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몇몇 사람들만이 발버둥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현실을 무시할 수 없기에 현실속에 굴복해 버리는 사람들도 하나 둘씩 늘어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잠재의식속에 있었던 저희들을 깨우쳐 주었던 사람은 바로 오빠예요. 언젠가는 모든 사람들이 오빠의 죽음이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었다고 느끼게 될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열사여!

열사의 죽음을 개인의 사욕에 이용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역시 말이 되지 않지만 이것은 현실입니다. 또 개인의 죽음이라 칭하는 사람들도 있구요. 잘못된 것을 올바르게 인식시켜 주어야 할 임무를 저희들이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에 부끄럽습니다. 언젠가 망월동에서 저희 부족함을 이야기하며 눈물 흘렸지요. 열사 무덤앞에 빛나는 졸업장을 안겨 주지 못한 것과 나의 이기심 때문에 모든 것을 팽개치려 했던 자신을 부끄러워 하면서요.

하지만 이제 주저하지도 멈추지도 않을 것입니다. 시계가 초를 움직여서 바늘이 가듯이 멈추지 않고 조금씩 움직여 바늘을 움직이게 할 것입니다. 열사의 죽음이 민중의 자식으로서 부활할 때까지 우리 열심히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사여 고이 잠드소서

참교육 이루기 4번째

4월 13일 안진선 올림

## 부모 형제들께

보성고등학교 학생일동

아!  
 이렇게 크게 한숨을 내쉬 후 누군가를 크게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떨고 있습니다.  
 친구의 소중한 행동을 보며 느끼며 가장 서러운 것이 있다면 주  
 위 어른들의 무관심입니다.  
 아니. 차라리 무관심이였다면 이렇게도 슬펐을까요?  
 우리가 진정 바라는 것은 철수의 분신앞에서 어른들은  
 돌을 던지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어느것이 더욱 슬프냐는 것을 말함이 아  
 니다.  
 사실 말하면 지금 우리는 분노합니다.  
 왜 친구의 값진 행동에 대한 댓가가 지탄의 소리가이어야 합니까?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서 배웠다기 보다는 스스로 느낍니다.  
 “불의 앞에서 결코 우리들의 서로서로 마주잡은 손을 놓지 않  
 기로 합시다”  
 우리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흙탕물과 맑은 물이 만나면 무엇이 어느 하나를 삼켜 버릴까요?  
 물론 흙탕물이 되고 말 것이라는 명제 아래서 우리는 또다른 명  
 제를 내겁니다.  
 지금 이 현실 앞에서 우리는 쓸데없는 말을 삼가고 약간은 침묵

하기로 합시다.

생각은 있어도 두렵다는 이들  
 이제 모두 깨어야 할 때입니다.

이 철흙같은 흙탕물 속에 철수의 굳은 행동같은 맑은 물을 계속  
 해서 부어주는 것으로서 우리는 조금씩 더 맑아지는 세상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내 이길 것입니다.!

철수가 목마른 가슴으로 외친 구호를 기억하기로 합시다.

“노태우정권 타도하자” “우리의 소원은 통일”

지금도 철수는 굳어가는 혀로 외칩니다.

“친구들이여! 하나로 뭉쳐 나의 뜻을 이어다오”

## 우리들의 결의

— 군민과 학우들에게 드리는 글 —

오월의 철쭉같은 어둠은, 말없이 푸른 하늘과 고요한 광야에 공허하게 흐를 뿐이요, 변하지 않는 유동의 세월 또한 그러할 뿐입니다.

수없이 많은 격동의 시기가 있었지만 현 시국은 경대형과 승희 누나와 같은 열사의 뜨거운 외침이 필요로 하는 지금 이시대의 그 모습은 열사를 거슬러 올라가보면 우리 부모님의 시대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10년이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변해가는데 여전히 이땅의 독재정권은 변하기는 커녕 더욱더 자리를 굳혀갈 뿐입니다.

권력자들은 배부름에 땡땡거리고 농민들은 음푹 패인 주름살처럼 더욱더 가난해질 뿐이요 배움의 전당인 학교에서는 온통 모순덩어리 현실의 합리성을 증명하기에 급급합니다.

학우 여러분! 보성 군내의 모든 부모님들!

이땅의 민주주의는 누구에게 필요한 것이며 참교육, 전인교육은 무엇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까? 모두들 자기가 찾아야 할 권리, 자기가 얻어내야 할 자유, 우리가 누려야 할 모든 행복 등이 많은데 왜 모두들 그저 바라만 보려는 방관자가 되려 하십니까?

여기 용감한 우리의 한 친구가 있습니다. 오직 이땅의 "민주주의와 참교육"만을 위해 19살의 꽃다운 나이에 자신의 목숨을 전제

로 걸고 최연소의 나이로 분신 항거함으로써 온몸으로 울부짖은 철수의 뜻을 얼마만큼 많이 독재정권이 알고 있는지... 또한 부모님들은 얼마만큼 철수의 거룩한 분신에 공감하시는지... 그러나 노태우정권의 권력자들, 많은 우리 부모님들은 철수의 의로운 분신 앞에서 굳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차라리 그것이 침묵이었으면 이렇게 애통하지만은 않았을텐데요.

한낱 청소년시절의 일시적 감정으로 행해진 철없는 행동으로 밖에 인정될 수 없고 그것만이 최상이라는 권력의 거짓된 진실앞에 힘없이 그저 쓰러져야 하는 이 시점에서 아무런 힘도 되어주지 않는 어른들의 무관심, 작은 저희들의 집회 모임을 보고서도 똑바로 뒤돌아서서 걸을 수 있는 그들의 나약한 모습에 가슴이 아플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철수의 뜻있는 분신의 항거의 값진 희생을 헛되게 할 수 없습니다.

학우여러분! 모든 보성군민 여러분!

오늘 저희들은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들의 친구 철수의 분신 항거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저 묻혀 버릴 수 없어 이자리에 모였습니다. 철수의 뜻을 노태우정권으로부터 쟁취하기 위해 하나가 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자리에 모인 저희들은 이렇게 결의합니다.

### 〈결의문〉

— 병상에 누워있는 철수의 빠른 쾌유를 위해 편지를 보냅니다.

— 모든 고교생과 보성군민은 철수의 치료비 모금에 적극 참여합니다.

— 모든 고교생을 비롯해 기성세대들 또한 철수의 쾌유를 염원하는 검은 리본을 패용합니다.

— 학생들과 교사들을 탄압하는 사람들에게 항의전화 합니다.



## 철수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 1. 자료를 소개하며

도대체 아이들의 죽음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교육부의 발표에도 해마다 100여명 이상의 중, 고생이 자살한다고 하며, 이러한 청소년들의 자살은 교육당국은 아니라고 하지만 상당수가 성적비판 자살의 경우이고 또는 이와 관련하여 성적위주의 몰가치적 삶에의 염세적 비판이 자살의 주된 이유라고 보여진다. 그럼에도 기성인들은 이들의 죽음에 즈음하여 신문의 대문짝만한 사설과 칼럼에 쓰기를 '나약한 아이들'이라고 '낙오자'라고 말하기를 서슴치 않는다. 또한 정부당국은 이러한 자살학생사태에 대하여 아이들의 강인한 심신자세를 갖추도록하기 위하여 '극기훈련' 등의 프로그램을 제도교육속에 도입하는 발상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민주교육과 인간화교육을 주창하는 학생, 학부모, 교사들에게서 이들의 죽음이 어떻게 음미되고 있는지 살펴볼 때 몇가지 우려스러운 점을 피할 수 없다. 아이들을 자살에 이르기까지 할 정도의 이들의 삶과 문화가 갖는 비인간성, 더 나아가 살인성을 이해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기성세대들조차 정확히 증언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88년 아이들의 계속된 죽음앞에 이들 진보적 교육관을 갖는 기성세대는 이러한 죽음의 문제를 그들의 추모행사나 위령제, 추모사에서 "보충수업, 자율학습 철폐"라는 대안으로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과연 그러한가? 그들이 죽음으로써 말하고자 한 것들이 고작 보충수업, 자율학습 철폐였다 말인가?

결코 아닐 것이다. 자신의 삶의 모순을 주체적으로 말할 수 없고, 그러한 지위를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세대로부터 쌓인 그들, 삶의 한을 우리는 마땅히 대변해야 하며 그로부터 진정 우리 참교육의 과제가 무엇인지를 바로 보아야 한다.

그들을 삶에 있어서 총체적으로 사람답게 살아갈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곧 그들에게 있어서 '참교육'이다. 교사들이 배후에 사주하고 선동하지 않았음에도 89년 이후 터져나오는 학생집단의 '참교육의 요구'를 보라. 그들이 과연 참교육론이 무엇이고 우리나라의 교육모순이 무엇인지를 약간이나마 학습하였기에 그랬던 것인가?

이 땅 분단교육, 식민교육, 독재교육—이러한 수식어로도 도무지 양이 차지않는 학생들의 표현 '살인교육'의 그 피해자인 학생 자신, 그 가해자는 누구인가?

우리는 이들이 남긴 글에서 어렵지 않고 단순함에도 너무도 진솔한 삶의 가치에 대한 갈구와 호소, 갈등을 본다. 이것이 스승에게 가르치는 제자들의 교육철학인 것이다. 이들의 자살에는 단순히 피해자로서의 동정적 대상화에서 더 나아가 '그들의 주체적인 자신들 나름의 삶의 해석'에서 시작되는 인간관, 교육관 등이 나타나 있고, 이것들은 스승인 교사들이 제자들에게 귀담아 들어야 할 교훈으로서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결코 그들의 자살을 미화하고 그들을 영웅으로 추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우리가 진정 우리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교육현실은 그 무엇보다도 이들이 고백하는 교육문제, 삶의 문제에 대한 이해에 동참하는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같이하고자 하는 것이다.

아울러 사랑하는 우리의 제자들이 이렇듯 탈출구 없는 자신의 삶의 갈등과 고민에서 자살의 극한적 방법으로 안락사의 길을 찾을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주관적으로 느끼는 차원에서 벗어

나 객관화, 대상화시키고, 집단화시켜서 스스로 이러한 교육문제 해결의 주체로 일어서는 운동에 나서야하겠다. 이미 이러한 집단적 몸무림이 일정정도 성숙되어지고 있는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아직은 어느 일정 지역에 국한되어 있고, 또한 이러한 고등학생운동이 자살학생들이 느끼는 삶의 모순을 대변하는데 있어서(운동과 생활의 일치정도의 고양) 그 사상성과 운동의 위상에 대한 이해가 빈약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이 또한 과제라고 보여진다.

여기 소개되는 O양의 유서로부터 김수경 학생, 심광보 학생의 남긴 글들은 치열한 교육현장의 모순에 온 생존권을 걸고 방황, 갈등하는 학생들의 교육주체로서의 의식발전을 보여주고 있다.

◇89. 9. 18 서울 양천구 목4동 신목로알빌라 나-302 ㅁ여고 1년 맹계원, 성적비판 “학교가는 것이 두렵고 자신없다” 녹음테이프 남기고 목매 자살.

◇89. 11. 5 인천시 남구 용현동 1중1년 이동혁, “공부못해 죄송합니다. 부모님 서로 싸우지 마세요” 목매 자살.

◇89. 11. 6 청주시 서문동 1중 3년 박모군, 기초실력 부족 비판, 헛간에서 목매 자살.

◇89. 11. 20 전북 완주군 운주면 구제리 운주중 2년 조귀례, 문인숙 “우리는 죽어서 평화롭게 지내겠습니다” 음독.

◇90. 6. 4 공주 한일고 정성목(2년, 16세)군 “나의 희생으로 우리학교의 교육방법이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의 정책에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라는 내용의 유서 5장을 남기고 기숙사에서 음독자살. 종아리와 등에 멍든 자국.

◇90. 6. 11 강릉 동해상고 추혜정(1년, 17세)양 6월7일 밤 음독, 11일 오전 사망.

하키선수로 최근 몸이 약해져 운동을 그만 두려고 했으나 체육 선생이 구타까지하며 운동을 강요하고 학교측에서도 운동을 안하면 학교를 그만 두라고 위협해 5월20일 자퇴서를 내고 고민했다고 가족들 진술. 학교측은 “추양이 목호여중에서 체육특기생으로 입학했기 때문에 운동을 강요한 것은 사실이나 구타하거나 자퇴서를

종용한 적은 없다”고 주장.

◇90년. 6월. 14일 광주 대광여고 오경옥 양 청옥동 제4수원지 뒷산에서 나무에 목매 자살.

『집중하고 싶다. 공부에 미쳐보고 싶다. 하지만 이것은 나의 간절한 희망일뿐... 1백 89일, 이제 얼마 남지않았다. 3.4, 5월 3번의 비교고사, 그때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던가? 떨어져 가는 성적을 더 이상 감당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 줄...안녕! 나의 조그마한 세상이... 비록 나는 가더라도 나를 죽이기 위해 칼을 갈고 있는 동료, 학우, 선생님, 부모를 너무나도 사랑한다.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제발 나를 미워하지 마세요.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저 하늘의 맑은 구름으로 태어나고 싶다』

## O양의 유서

O양(15세. 사대부중 3학년)

— H에게

난 1등 같은 것은 싫은데……  
 앉아서 공부만 하는 그런 학생은 싫은데.  
 난 꿈이 따로 있는데. 난 친구가 필요한데……  
 이 모든 것은 우리 엄마가 싫어하는 것이지.

난 인간인데.  
 난 친구를 좋아할 수도 있고.  
 헤어짐에 울 수도 있는 사람인데.  
 어떤 땐 나보고 혼자 다니라고까지 하면서  
 두들겨 맞았다.

나에게 항상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기라고 하는 분.  
 항상 나에게 친구와 사귀지 말라고  
 슬픈 말만 하시는 분

그 분이 날 15년 동안 키워준 사랑스런 엄마.

너무나 모순이다. 모순.  
 세상은 경쟁! 경쟁! 공부! 공부!  
 아니 대학! 대학!  
 순수한 공부를 위해서 하는 공부가 아닌,  
 멋들어진 사각모를 위해,  
 잘나지도 않은 졸업장이라는 쪽지 하나 타서  
 고개 들고 다니려고 하는 공부.

천만 번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고,  
 그렇게 해놓고는 하는 짓이라고는 자기 이익만을 위해  
 그저 종이에다 글 하나 써서,  
 '모박사' 라고 거들먹거리면서,  
 나라, 사회를 위해 눈꼽만치도 힘써 주지도 않으면서  
 외국에서 하라는 대로 따라 하는 따위.

공부만 해서 행복한 건 아니잖아?  
 공부만 한다고 잘난 것도 아니잖아?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해 이 사회에 봉사.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위해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면  
 그것이 보람있고 행복한 거잖아.

꼭 돈 벌고, 명예가 많은 것이 행복한 게 아니잖아.  
 나만 그렇게 살면 뭐해?  
 나만 편안하면 뭐해?

매일 경쟁! 공부! 밖에 모르는 엄마.  
 그 밑에서 썩어들어가는 내 심정을  
 한 번 생각해 보았습니까?

난 로봇도 아니고 인형도 아니고,  
 돌맹이처럼 감정이 없는 물건도 아니다.

밝히다. 밝히다 내 소중한 내 삶의  
인생관이나 가치관까지 밝혀버릴 땐.  
나 그 이상 참지 못하고 이렇게 떠난다.

하지만 사랑하는 우리 엄마이기 때문에……  
아. 차라리 미워지면 좋으련만.  
난 악의 구렁텅이로 자꾸만 빠져들어가는  
엄마를 구해야만 한다.  
내 동생들도 방황에서 꺼내줘야 한다.  
난 그것을 해야만 해. 그치?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  
난 그 성적순위라는 올라미에 들어가  
그 속에서 허위적거리며 살아가는 삶에 경멸을 느낀다.

“전교 ○등. 반에서 ○등.  
넌 떨어지면 안된다.  
선생님들이 널 본다.  
수업시간에 넌 항상 가만히 있어야 한다.  
넌 공부 잘하는 학생이니깐 장난도 치지 마라.  
다음 번에 □등 해라.  
왜 떨어졌어?  
친구 사귀지 마.  
공부해!  
엄마 소원성취 좀 해 줘.  
전교 1등 좀 해라.  
서울대학교 들어간 딸 좀 가져보자.  
그렇게 한가하게 음악 들을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공부해”

매일 엄마가 하시는 말씀들.  
자기가 뭔데 내 친구 편지를 자기가 읽는 거야.

그리고 왜 찢는 거야.  
난 사람도 아닌가?  
내 친구들은 뭐. 다 못난 거야?  
그리고 왜 약한 사람을 괴롭혀?  
돈! 돈! 그게 뭐야.  
그게 뭔데 왜 그렇게 인간을 괴롭히는 거야.

난 눈이 오면 한껏 나가 놀고 싶고,  
난 딱딱한 공해보다는 자연이 좋아.  
산이 좋고, 바다가 좋고……  
하긴 지금 눈이 와도 못 나가는 걸.  
동생들도 그러하고……  
너무 자꾸 한탄만 했지, 그치?

졸업하면 나는 아예 그 먼 고등학교에 가서는  
집에 갇혀서 죽도록 공부만 해야 될 것이다(으, 끔찍하다).  
난 나의 죽음이 결코 남에게  
슬픔만 주리라고는 생각치 않아.  
그것만 주는 헛된 것이라면,  
난 가지 않을 거야.

비록 겉으로는 슬픔을 줄지는 몰라도,  
난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줄 자신을 가지고  
그것을 신에게 기도한다.

## 내 죽음을 왜곡시키지 말아다오

— 고 김수경학생 죽음을 두눈 부릅뜨고 직시하자 —



학생인권의 사각지대,  
반인간적 교육으로 인해 끝내 우리결을 떠나간

### 고 김수경 학생

"...수경이를 두번씩이나 죽게 해서 안된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죽은 우리 수경이를 엉뚱하게 매도하고 왜곡시키는 비겁한 짓을 하는 사람들은 더이상 고개들고 제자들 앞에 설 수 없다! 하늘이 보고 있다! 우리 위에서..."

## 김수경 학생 자살 경과보고

김수경양이 다니던 경화여고(학교장 손남규)는 경암교육재단의 학교로 고질적인 사학재단의 비리와 학생들에 대한 억압으로 인해 많은 수의 교사들이 전교조활동에 참여해 왔고 그로 인하여 6명의 교사들이 교단을 떠난 학교이다. 수경양은 우수한 성적과 쾌활한 성격으로 친구들에게 인기가 있는 학생이었으며 1학년때는 학급의 실장을 맡아 보았고 3학년이 되어서는 학생회의 총무로 일하였다.

수경양은 작년, 담임인 최진열선생님이 해직될 위기에 처하자 학급의 대의원으로서 사랑하는 선생님을 지키고자 노력하였고, 그 후에는 학생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결과 학교측에서 찍혀 많은 시달림을 당해왔다. 자율적인 학생회활동에 사사건건 탄압 당하고 일상적으로 인격적인 무시를 당했으며 노골적으로 "빨갱이"라고 욕을 들어 온 수경양은 학생회장에게 "학생회장이 좋긴 좋다 그래도 너는 나만큼 당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할 정도였다.

이처럼 학교측의 일방적인 탄압과 폭언, 폭력에 대한 울분이 누적된 상태에서 지난 6월 5일 청소시간인 5시경 친구 소연양과 함께 교문 앞 문구사에 나갔다가 들어오던 중 체육교사(서진교 교사)에게 붙들려 아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책으로 머리를 내려치는 등 모욕적인 구타를 당하였다. 이 결과 평소 몸이 약한 소연양은 약 30분간 의식을 잃기도 하였다.

그런데 경화여고는 평상시에 학생들이 청소시간을 이용하여 많

은 학생들이 외출을 해 왔고 실제로 두 학생이 구타를 당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많은 학생들이 교문을 드나들고 있었는데 유독 두 학생에게만 비인간적인 체벌이 가해진 것이다. 전교조 교사에 호의적이었던, 학생회 활동에 적극적이었던 학생들에 대한 경화여교의 상시적 탄압을 보여주는 한 사건이었다.

보충수업 1시간을 빼먹고 매를 맞은 수경양은 교실로 돌아가 학생회장(차은남)에게 편지를 써 짝에게 주며 한 시간 후에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학교를 나섰다. 1시간 후에 편지를 전해 받은 학생회장은 “학교에 안을 것 같다. 과연 우리 학교는 다닐 곳이 못 된다는 걸 느꼈고... 내 죽음이 왜곡되거나 않았음 좋겠다”라는 편지내용을 보고 심상치 않게 여겨 담임에게 알리고 집에 전화를 했으나 수경양은 귀가하지 않아 작년 담임인 최교사등과 함께 새벽 1시까지 찾아 헤매었다. 학교를 나선 수경양은 바로 경산 영남대 캠퍼스로 가 9시-11시경 인문관 4층에서 “엄마 아빠 미안해요. 다음에 다시 태어나면 자랑스런 딸이 될게요”라는 짧은 말을 남기고 뛰여 내렸다. 11시 20분경 학교 경비가 시신을 발견하여 영남대병원 영안실로 옮겼다.

6월6일 저녁 영남대 영안실에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교사, 친구들 외에 교위 장학사들과 사복형사들이 함께 했다. 사건이 커지고 본질이 알려지는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6월7일 (목) 수경양의 장례(3일장)가 있던 날 경화여교 학생들 몇명은 학교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진상을 알리는 대자보를 부착하려 하였지만 학교측은 이를 제지하였고, 학생들 전원이 검은 리본을 패용한 상태에서 50여명의 학생은 장례에 참석하기 위해 영안실에 모였다.

이날 학부모는 일간신문의 잘못된 보도에 불만을 표시하며 수경이의 유서를 공개했다.(마치 성적비판 자살인듯이 보도된 것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한 것이다. 또한 신문방송들은 학생활동에 대한 탄압, 체육교사 서진교의 비인간적 폭력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도 않았다. 수경양의 죽음의 이유는 무엇보다 학생회장에게 남긴 유서에 잘 나타나있다.)

장례절차는 학교측의 입장을 쫓아 사건을 축소, 무마시키려는 일부 사람들에 의해 신속히 진행되었으나 수경양이 마지막으로 친구들이 기다리는 학교에 꼭 가야한다는 학생들의 주장을 부모가 허락하여 오후 2시경 영구차가 경화여교로 출발하였다. 영구차는 수경이의 추모제를 지내지 않고 후문으로 들어가자마자 정문을 빠져 나와버렸고 학생들은 “수경이를 살려내라”고 울부짖으며 뒤를 쫓았으나 학교측은 교문을 닫아 버렸다. 영구차에 타고 있던 학생들 15명 정도가 영구차 앞에 드러누워 추모제를 지내고 가야한다고 호소했으나 교사 등이 학생들을 강제로 들어내고 영구차는 화장터로 향하였다. 이날 오후 3시 30분경까지 약 300여명의 학생들이 유서낭독, 추모시낭독, 교가제창 등 약식 추모제를 갖고, 학교 담에 수경이의 진실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대자보를 부착했다. 0양의 죽음이 “행복은 성적 순이 아니다”라고 입시경쟁교육에 항변하여 죽어간 것처럼 수경양은 학생의 인권이 무참히 짓밟히고 학생들의 자율적인 활동은 모조리 빨갱이로 몰리는 교육현장에서 “더 이상 이학교는 다닐 필요가 없다”고 항변하며 죽어갔다. 경화여교 친구들의, 사랑하던 사람들의 애도속에서 수경양은 19세의 짧은 애달픈 생의 막을 내렸다.

### 김수경학생의 “마지막 유서”에 대한 우리의 입장 (죽음의 의미)

6월11일 김수경학생의 마지막으로 쓴 유서가 작년 담임이었던 해직교사 최진열 선생의 집에 도착하였다. 우리는 어린 제자의 구구절절한 아픔이 담긴 유서를 보면서 다시 한 번 눈물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수경이의 죽음을 두고 그의 죽음의 참담한 의미와 진실을 왜곡시켜 온 학교측의 비인간적이고 반교육적인 음모에 대하여 분노하면서 또 한편 사건의 진상을 왜곡보도해 온 일부 언론에 대해서도 우리는 안타까움을 느껴왔으나, 이제 그가 죽음을 앞둔 바로 그 시각에 써서 보낸 유서를 보면서 사건의 진상을 전 국

민에게 바로 알릴 수 있게 되어, 수경이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다행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유서에서 보듯이, 결국 참교육이 실현될 수 없는 척박한 교육현장에서 참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일어난 선생님들을 지지하고, 징계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교육의 주체인 학생의 권리이며 인간적인 발상이라 아니 할 수 없으며 이것을 빌미로 학생들을 탄압하고 죽음으로까지 몰고 간 것은 참으로 가슴스런 만행으로 규탄되어 마땅하다. 전교조 해직교사들이 학교를 떠난 이후 전국적으로 진행되어온 학생 탄압이 극에 달하였고 참교육을 받을 권리는 박탈되어왔으며, 이는 학생회 및 학생 자율적인 모든 활동에 대한 탄압으로 구체화되었다. 결국 이번 사건도 단순한 한 어린 학생의 죽음이 아니라, 문교부, 시교위가 주도하고 학교장과 비양심적인 일부 교사가 교육을 장악하기 위한 학생탄압모드가 학생의 저항과 죽음을 불러 온 것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분명해진 사건의 진상을 세상에 널리 알리며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이의 관철을 위해 끝까지 투쟁함으로써 수경이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할 것이다.

1. 수경이를 죽음으로까지 몰고 간 1차적인 책임자인 손남규 교장은 학생탄압과 죽음의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사퇴하라!
2. 학생을 죽음으로까지 몰고간 서진교 교사는 수경이의 장례 이후 교사로서의 최소한의 양심과 책임을 부정하고 수경이를 왜곡시켜온 데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사퇴하라!
3. 문교부와 시교위는 학생회와 학생활동을 탄압하고 혹은 이를 방조해옴으로써 학생의 인권을 유린하고 이와 같은 사태로까지 몰고 온 책임을 지고 즉각 이를 해결하고 이후 학생회활동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라!

1990. 6. 12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Dear 선생님

선생님! 먼저 이런 큰 운이 드수 밖에 없었던 건 감사하구요  
 들 어떻게 싸야 할지 라는 바깥에서 한 걸음 생각해볼게  
 결국 남은 건 제게 남은 건 눈물 밖에 없어요.  
 아, 이 편지가 도착할 때 잠깐이나 전 이 세상에 남은 것 같았다. <중략>  
 너무 갑작스러워 난의 (생생?)의 대면이 있었는데 그 큰 어음에  
 운이 갑자기 관여하셨던 애기. 밖에서 주시는 인종이라는 등 서론에 가일이  
 되어 있어 어머니 자제니 하는 식으로 애기 (자제)은 있었는가 바요 <중략>  
 그 다음엔 전 도항에 편 가는 대지론 나는 진상인 것 같다  
 안아줘 대를 뭉 애기 '무슨 생애 하나' '자주 떠나는 선배인 워나'  
 '전과 생애니 이런 거짜고'

<중략>

내시자마다 눈 제가 남아 있는 순간엔 다행이고 문만 아들이 담았어요.  
 선생! 제가 전에 전과로 개 보던 것 사나있고  
 그런 선생님은 더 좋아했던 것 사나있고  
 어떤 애나선미 제가 날다나기가 본편나서면 아니 인종하던 아이 그본  
 학과야  
 (??)  
 옛 친구에게 자신의 말을 귀찮게는 아파나면으로 바뀌는 안  
 모든 학생이 반 안에서 누른 후고 안아 왔습니다  
 서 리요! 그 사람은 제게 반항적인 행동이 있었으니 승용이 좋지 안니  
 그러다가 태성이 아려니 저러니 앞의 승용이 아려니 저러니  
 그러고 제가 너무 다행이다  
 아주 갑천도 없었던가 --- 해비 건 작고 주사비 있는 주만 안이었던가  
 그대 너무 슬픈 ... 다쳐온 생애 (리움나나)가인 생각했습니다  
 모든 제가 걱려리던은 거다렸던 것 같습니다.  
 애기 왜 제가 주려니 반지 아시겠습니까?  
 차음엔 야런 귀기나도 남겨 놔야 합니다  
 하지만 승용 제가 주려니 생애는, 자 생애때문에 비안사은 있었나  
 그렇게 애기되는게 생각했습니다.

<중략>

이런 제사들것 너무 너무 더더이십지 내시구  
 감사하세요  
 전과로 재이었던 게 제가 탄압면 반성에서 몇몇이 책임을 받고 있습니다  
 P.S 선생님 사랑합니다  
 90. 6. 5  
 수경이

### 수경양이 죽기전 마지막 남긴 편지

원삼아!

내가 학교에 꼭 다시 오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아마 안 올 것 같다  
 .과연 우리학교는 내가 속이 못 잡다는 것 느꼈고  
 .한 번 운동장(?)의 짙은 학생들  
 사사적인 트립이 된다는 것

원삼아!

힘들었지만 우리 학교 잘 아들이나  
 나도 학생회장이 됐으면 어떻게 되었을지  
 알 것 같다

힘들어간 건 역시 풀은거다

다른 거 뭐든 내 마음이 애착이 없거나

안았음 좋겠다

행복해나.

90. 6. 5

가

### 이제 어둠이 가고 빛이 올 때

— 선생님, 꺾어 버리십시오. 억압의 사슬을.  
 무너뜨려요. 갈라짐의 장벽을 —



참교육을 갈망하다 우리 곁을 떠나간  
 고 심광보 학생



## 심광보 군의 상황

### 1. 가족관계

아버님(57):농사(소작농) 충북 증원군에서 사심.

5형제중 둘째로 아버님의 주벽과 무분별한 행위때문에 동네에서도 손가락질받음. 어머님도 언어장애가 있음. 큰 형이 고등학교때 농약먹고 자살함.

농기구 빌리러 갔다가 집안 문제로 모욕적인 처우를 받고 크게 싸운 후 화집에 죽었다고 한다. 광보 얘기로는 가난과 인격적인 대우를 못받는데서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다시는 그런 죽음이 되풀이되서는 안된다고 곳곳하게 강하게 살아왔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서울 작은아버지에게 돈을 타 썼으며, 항상 배고파 했다고 함.

### 2. 학교생활과 교외생활

광보군은 증원군 양성중학교를 졸업했으며, 실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중학교 동창들의 얘기로는 한결같이 '똑똑하고 착한 애' '어려움속에서도 곳곳이 살아 온 애'라는 얘기로 일치되어 있다. 학교생활에는 경제적 어려움이 많이 따랐으나, 기어이 이겨내는 모

습을 보였다.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으며, 지식수준은 대학생이상 이었다고 한다. 주로 철학, 종교서적, 푸른나무같은 책을 관심있게 읽었으며 "예수님의 죽음"을 감명 깊게 읽었으며, 그러한 책들은 책사랑방에 많이 기증을 하였다 한다.

90년 2학년이 되자 작은 아버님의 경제적인 지원이 끊기면서, 가정형편과 건강(위염)상의 문제로 휴학과 취직을 결심하게 된다. 일부 뜻있는 선생님들이 학비와 생활비를 보조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자립의지와 동생들을 보살피야 한다는 책임감때문에 거절하고 금년 6월에 휴학하고 취업을 했다.

88년부터 신앙생활을 하여 교회에서 숙식을 하기도 하였다. 당시 전도와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고 한다. 중3때는 진학문제로 고민을 했고 가정형편상 실업계인 공고(형공고를 갔음)에 입학하려 하였으나 주위의 권고로 연합고사 전 후가 합격선인 인문계열 명문고 충주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 3. 평소 의식과 자살에 이르기까지

그의 평소의 꿈은 신학대학을 졸업하여 농촌선교를 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자신의 어려서부터의 경험으로 인해, 이 세상의 불평등과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 빠져린 고민을 해왔다 한다. 그는 어려서부터 배고픔의 생활을 거쳐 성장하면서 형의 죽음을 단순한 일 개인의 문제나 일개 집안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속에서 결국에는 죽을 수 밖에 없었다고 하며 그 당시부터 이러한 "사회"라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고백하고 있다. 그런 사회속에서 그는 사랑을 갈구해왔으며 친구들에게도 항상 모든사람들을 사랑하고 모든 이들을 위해 목숨을 바칠 것을 피력해 왔다고 한다.

그리고 친구들의 증언에 의하면 심군이 참가하던 모임에서도 가난한 학생들을 끔찍히 위해 주었으며, 편지 끝에도 항상 버림받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겠다고 썼다고 한다.

이러한 그의 의식상황에서 "참교육"이 사회문제화되자, 그는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보며 사랑의 학교를 만들려는 참교육에 희망과 보람을 느끼게 된다. 그는 돈이 없어서 참교육 티셔츠를 사입지 못하는 것을 무척이나 안타까워했으며, 조그마한 것이라도 전교조 사무실로 참교육 물품을 사러 갔으며, 그런 것들을 동료들에게 선물하려고 애썼다.

이러한 참교육에의 갈망은 그의 삶을 통한 지극한 학교생활에 대한 애착에서 연원하기도 한다. 그는 그의 얘기를 들어주는 선배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학교만은 꼭 다닌다고 의지를 밝혔으며, 휴학중에도 입버릇처럼 급우와 학교와 책상이 그림다고 했다.

고교입학 후 그는 작은 아버지의 경제적 도움을 받아가며 충주 시내에서 3만원짜리 골방에서 자취생활을 해왔다. 그런데 금년들어 작은 아버지의 도움이 끊기자, 그는 휴학과 취업을 결심한다.

선생님들이 학비와 생활비를 거두어 다니라고 설득했지만 그는 자립의지와 동생들을 보살피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6월 중순경 휴학계를 낸다. 이 과정에서 학교측의 비교육적인 대응이 그에게 상당한 심적 상처를 주었을 것이라 추측된다. 즉 학교측에서 우리 학교에 전학오려면 몇 천만원을 내라. 휴학계를 내면 다른 학생이 올 수 있는 자리가 생기지 않으니 자퇴를 해라. 가난해서 못다닌다는 것은 이유가 안된다.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지금 휴학하면 못다닌다. 나갈래! ~ 등으로 옥박질렸다고 한다.

그는 그 후 「무서운 학교」라고 그 충격을 표현했다고 한다.

이러한 학교의 모습은 그에게 교육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게한다.

학생들 모임에서는 학생활동은 학교현장을 파고들어야 하며 학교비리에 대해 유인물을 돌리고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고 친구에게 주장했으며, 어떠한 타협도 거부하는 삶의 자세를 견지했다. 즉 충주고에서 학생성적이 떨어진 것은 정신이 해이해져 그런다며 교련조회를 실시한다든지 건전한 학생활동을 색안경을 끼고 감시한다든지 사물을 배우는 것까지 불온시하여, 학생모임 구성원 이름

을 대주면 장학증서를 주겠노라고 하는 등의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비인격적인 처사에 그의 분노는 증폭되었으리라 추측된다.

결국 휴학을 하고 8월 중순경 서울에 올라가 신문가판등으로 돈을 벌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8월말 경 내려왔는데, 그는 체험을 바탕으로 "노동자문제"에 대한 관심이 심화되었고 사회불평등을 더욱 뼈저리게 느꼈다고 한다.

그후 조그만 용역회사에 며칠 다니다가, 그동안에 빼어났던 사회의 불평등과 참교육에의 갈망을 지니고, 9월7일 20시 20분경 김윤택 치과 건물3층에서 분신, 투신자살하였다.

그가 그의 죽음을 사회문제화하고자 했음은, 그가 죽기 하루전 9월6일 개인적으로 친하던 친구보다는 전교조등 공개단체에 편지를 써서 보냈고, 변화가에서의 분신자살을 택했다는 데서도 알 수 있다. 그리고 평소 편지에서도 「가장 낮은 데로 임하는 작은 예수가 되소서」라고 쓰고 있으며, 평소에도 김세진 열사를 흠모했다고 한다.

그의 뜻은 그의 죽음을 앞두고 쓴 시에 잘 나타나 있다.

### 가는 길목에서

나는 세상을 거부하는 몸뚱아리요  
사랑이 없는 곳에 사랑을 토해내고  
진실이 없는 곳에 진실을 기침해대는  
나는 이세상에 구역질난 사람이요.

나는 거꾸로 된 세상에서 살 수 없어요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세상을 등졌소  
내 명당 자리는 꿈이 자라는 학교라요  
이 한 몸 썩어 그대들 밑거름이 되고싶어요.

그의 교육모순에 대한 이품과 참교육 열망은, 「우리들의 친구가 얼마나 더 죽어야 참교육이 이루어지려나」고 친구들에게 묻고 싶

어 했으며, 전교조에 보낸 마지막 편지에서 「참교육 안고 돌아라 바람아 바람아. 한반도를 휘휘 불어가라. 오라 오라 참교육 안은 바람이여,」라고 절규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 사회의 모순을 온 몸으로 담아내야 했던 한 학생의 참교육에 대한 뼈저린 절규가 이러한 통탄스러운 죽음으로 나타났다고 하겠다.

### 사람 사랑 친구에게

나 이제 떠나네. 무슨 말을 더 하나. 다만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하네. 그래야 “큰 힘” 앞에서 흔들리거나 꺾이지 않을거네. “참교육”—난 말일세.

이처럼 소중한 선물을 받은게 너무 기쁘다네. 생일 선물보다도 더 희열이 넘치네. 함께한 지난 날들 죽어서도 잊지 못할걸세. 나의 삶. 우리들의 삶을 바꿔 준 서로의 만남을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가을은 가을이로군. 안녕하—.

### 미정

우리들의 꿈. 어서 오라. 노래하라. 훨훨 춤추라. 그렇다. 가슴 열고 기쁨을 나눌 날이 있을거다. 그때까지 내 사랑. 그대 울지말아라. 누구나 한번쯤 떠나는 길이여. 마냥 슬퍼할 수 만은 없잖아. 가을아 익어라. 어서 어서. 간헐적인 죽음의 엄습. 익기 시작한 가을처럼 너도 익어라. 내게 주어진 길을. 낙엽지듯. 바람에 날려 가리라. 아 하늘을 하늘이라 말 못하는 이곳을 사랑한 자들이 남아 살아 숨쉬고 있을 이 땅을. 조국을 두고 가야 할 머나먼 나라. 내 먼저 앞서 가노니. 진달래 흐드러지게 될 날에 우리 다시 만나자. 꼭 만나서 지난 이야기. 사랑을 나누자. 몸아 타올라라. 마음도 타올라라. 석은 수액이 다 타지도록 훨훨 타고르는 역사를 밝힐 불꽃이 되라. 그리하여 뼈를 갈아대고 피를 말리는 벌레같은 이들을 모조리 싹쓸이 하리라. 참세상 드러내리라. 네 빈 뜨락에 민들레로

피리라. 생명으로 흐르리라. 평화가 열릴 가지로 뻗으리라. 강하게 뿌리 내리리라.

봄이 오면 여지없이 제비가 찾아오리니 낸줄 알아라. 여름이면 쏟아지는 소나기. 나의 깊고 푸른 설움인 줄 알아라. 가을이 되어 싸늘한 바람불거든 내서러운 한숨이라 생각하여라. 겨울 찬 달 느끼면 내 애달픈 마음기억하라.

가을이 온다. 사랑이 온다. 이별이라는 그림자가 함께 살금살금 와 버리는구나. 어이하리. 우리들의 청춘이 너무나도 더럽게 색칠되는 걸. 어찌할까나. 일어서라. 밝히다 밝혀 더 이상 밝힐게 없거들랑 살아남기 위해. 참다운 권리를 되찾기 위해. 우리들의 예뻐 동산을 일구기 시작하여라.

어허 세상이 어찌될려구 이 모양 이 꼴을 가지고 그냥 가려고 하는가. 너무 굵아 터져 버렸네. 상처 입은 채로 가다간 중간에서 쓰러지지. 늙은 몸으로 뛰다 쓰러지고 말고. 암 그렇고 말고. 자. 젊은이들이여 건강한 이 땅의 주인들아. 뭐 하느냐 늦겠다. 어서 어서 깨어 일어나 소리쳐라. 외치거라. 잡귀신 물렸거라. 병마를 물리쳐라. 힘을 가다듬고 끝까지 싸워라.

머지않아 황무지가 장미꽃으로 동산을 이루리라. 새들이 날아와 노래하리라. 사랑의 샘이 넘치리라.

### 혜 정

마지막 밤을. 별이 빛나는 밤에 이제 떠나간다. 바람이 차다. 풀벌레들의 예정된 울음. 그 역사를 위하여 자신을 엮어내어 찌르르 노래한다. 슬픔의 노래 소리친다. 어두운 하늘을 향해 그 어딘가 있을 정의의 신께 울부짖는다. 목을 놓아 포효하리라. 마침내 신의 감동을 얻어 내리라. 뜨거운 가슴을 자극하리라.

그대 언젠가 오겠지 서로 험뜯지않고 용납하는 새 하늘. 새 땅이 도둑처럼 오겠지. 우리들이 바라는 모두 행복한 나라. 사랑이 충만한 사회가 올거야. 애해라 좋을시고 그날이 올거야. 그때까지 우리 잊지말고 살자. 끝없이 달려가자. 험한 산골짜기. 가파른 언

덕도 겁내지 말자.

사람들이여, 아름다운 사람아 고운 눈빛으로 이 세상을 비추렴.  
그리해야 빛이 어둠을 물리칠게 아닌가. 그러면 어둠이 제 스스로  
몸을 감출게 아닌가.

안 그래 사람들아. 죽은 자만이 할말을 제대로 하리라. 완성의  
생을 맛보는 죽은 자여.

우린 아직 몰라. 사랑도 너무 얇어. 가벼워. 금방 바래지겠어.  
후우 불면 날아가 버리지. 간다. 부끄러움만 남긴 채 저 평등의 새  
땅으로 광활한 대지위 무덤은 어디? 나를 찾지 마라. 여기에 없다.  
썩은 육신 뿐. 영생을 믿나. 눈 딱 감고 믿어라.

가을. 어느 바람 불던 날 아무 말없이 떠난 사람. 바람불면 그  
리 여기오. 평화로운 길이 열려지기를 기원하는 작은 자의 외침을  
들으시오.

민주주의여 만세! 참교육 그날이여 어서 오라.

### 전교조선 선생님께 드리는 글

이렇게 깊은 인연이 또 있을까요.

작년 구월께였을 겁니다. 작고 후미진 그런 사무실이 이젠 제법  
자리를 잘 찾아 잡았네요.

벌써 일년이란 세월동안 선생님들과 정을 나누더니만 부라부라  
떠나게 되었군요.

너무 상심해 마십시오. 오히려 세상에 흘릴 눈물이 부족하리라  
봅니다. 참교육 그날을 보고싶은 마음 저 도도히 흐르는 남한강보  
다 더 깊이 깊이 설레입니다. 나라꼴이 어찌되려고 인간을 인간답  
게 가르치려는 뜻을 이다지도 모른 채 합니까?

허나 국민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용기  
를 내어 이겨 가십시오.

어느덧 무덥고 긴 여름이 갔네요. 그리고 서늘한 바람을 몰고  
가을이 왔고요. 그래요. 어둠이 가고 빛이 올 때라 봅니다. 희망을

담은 새 아침의 날이. 날로 날로 새로와지는 꿈인줄로만 알았던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아. 눈부신 햇살이여. 우리들의 희망찬 날  
이여.

선생님.

할만큼 후퇴했습니다. 할만치 침묵했습니다. 자. 끊어 버리십시  
오. 억압의 사슬을.

무너뜨려요. 갈라짐의 장벽을. 거두어 들여요. 쭉정이를.

참교육 안고 돌아라. 바람아. 바람아. 한반도를 휘휘 불어가라.

오라. 오라. 참교육 안은 바람이여.

1990. 9. 6

심 광 보

이렇게 깊은 인연이 또 있을까요.  
작년 구월께였을 겁니다. 작고 후미진 그런 사무실이 이젠 제법  
자리를 잘 찾아 잡았네요.  
벌써 일년이란 세월동안 선생님들과 정을 나누더니만 부라부라  
떠나게 되었군요.  
너무 상심해 마십시오. 오히려 세상에 흘릴 눈물이 부족하리라  
봅니다. 참교육 그날을 보고싶은 마음 저 도도히 흐르는 남한강보  
다 더 깊이 깊이 설레입니다. 나라꼴이 어찌되려고 인간을 인간답  
게 가르치려는 뜻을 이다지도 모른 채 합니까?  
허나 국민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용기  
를 내어 이겨 가십시오.  
어느덧 무덥고 긴 여름이 갔네요. 그리고 서늘한 바람을 몰고  
가을이 왔고요. 그래요. 어둠이 가고 빛이 올 때라 봅니다. 희망을

## 심교육의 불꽃으로

---

펴 낸 날 / 1992년 5월 20일

역 은 이 / 고 김철수군 추모사업준비위원회

기획·편집 / 김영효·노미숙·장석웅·박효수·정경호·허철호

펴 낸 이 / 박영희

펴 낸 곳 / 도서출판 **참**

501-030

광주시 동구 대인동 323-9 한양빌딩 3층

(062) 226-3273 / FAX (062) 223-7409

서울영업소: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58-1

(02) 313-1707

등록: 광주시 제99호(1990. 12. 27)

---

\* 흠 있는 책은 바꿔드립니다.

값 3,000원



도서출판 **책의** 책들

•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 올바른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위한 참신한 대안

• 미주참교육

— 미국이민1세, 2세들이 겪는 교육현실과 참교육의 염원을 담은 책

(미주참교육 실천모임 위음, 비매품)

• 이야기해 주세요

— 이야기가 얼마나 훌륭한 공부인가를 밝혀 보여주는  
쫓붙이고자 하는 책

(편집부위음, 값 5,500원)